윈리

고전 문학

정답과 해설

윈리

고전 문학

정답과 해설

Ⅰ 고전 운문

22~23쪽

01 공무도하가 / 정읍사

핵심 포인트 ❶ 물 ❷ 죽음 ❸ 남편 ❹ 무사 귀가

1. ⑤ 2. ③ 3. ④

가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과 사별한 슬픔을 다룬 시가들의 원류가 되는 현전 최고(最古)의 서정 가요이다. 배경이 되는 설화에 따르면, 고조선 때 남편 백수광부의 죽음을 본 아내의 노래를 목격자인 뱃사공 곽리자고가 듣고 아내 여옥에게 전한 것이다.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와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다.
- **주제**: 임과 사별한 정한(情恨)
- **표현상의 특징**
  ①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이전 시기의 집단적 서사시들과 달리 개인적 서정시의 면모를 보여 줌.
- **구성**

1행	임을 만류함.
2행	임이 떠남.
3행	임이 죽음.
4행	화자의 탄식

나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자 한글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로, 행상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밤에 아내가 지어 부른 노래이다. 화자인 아내는 광명의 존재인 '달'에게 남편이 오는 길을 비추어 달라고 기원하고, 남편이 위험에 처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주제**: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
- **표현상의 특징**
  ① 여음구(후렴구)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②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의 시조 형식의 연원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 **구성**

1~4행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함.
5~7행	남편에게 위험이 닥칠까 염려함.
8~11행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함.

1. | 작품 간 비교 감상 |

(가)는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명령문을 통해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화자의 단호한 만류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고, (나)는 '머리곰 비취오시라'와 '어느이다 노코시라'라는 명령형 진술을 통해 각각 달과 남편에게 당부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나)에서는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같은 여음구를 통해 리듬감을 조성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나, (가)에는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나)에서는 '돌'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한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가)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색채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4행인 '가신 임을 어찌할꼬.'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원망과 질책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시구에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체념적 태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①, ② '물'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 1행의 '물'은 남편이 그것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사랑으로 볼 수 있고, 2행의 '물'은 그 사랑의 종말, 기약 없는 이별 같은 것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으며, 3행의 '물'은 남편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설화에 따르면 이 노래를 부른 후 아내도 따라서 물에 몸을 던졌다고 했으므로, 3행의 '물'은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의 원인인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재회할 수 있는 통로라는 의미도 지니는 셈이다. 따라서 1행의 '물'이 남편을 뒤따르며 그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내의 사랑이 담긴 소재라는 설명, 그리고 3행의 '물'이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과 동시에 남편과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을 환기하는 소재라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설명한, 백수광부의 정체를 무당으로 보는 학설에 따르면 그는 고조선의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위를 잃게 된 무당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절망감이 술에 취해 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 또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설명한, 백수광부 부부를 신화적 존재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술병을 낀 채 물로 들어가는 백수광부를 술의 신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아내는 음악의 신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기 분석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무도하가」 감상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설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글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물'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의 정서를 이해할

것을 안내하고, 설화 속 백수광부의 정체에 대한 학설을 소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은 '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남편이 물건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러 나갔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챙기느라 위험한 상황이 가중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답 분석

① ㉠은 염원의 대상인 광명의 존재 '달'에게 멀리멀리 비춰 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남편이 어두운 밤길을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아내의 바람이 담긴 것이다.

② 〈보기〉에 의하면 남편이 먼 곳으로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져재', 곧 '시장에' 행상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보기〉에 의하면 (나)는 남편이 해를 입을 상황을 진흙에 더럽혀질 것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남편이 진 데를 디딜까 두렵다고 한 것은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졈그롤셰라'는 날이 저물까 봐 두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에서 '가논'의 주체를 남편이라고 해석할 경우, ㉤에는 날이 저문 뒤의 어둠으로 인해 남편이 위험에 처할까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4~26쪽

02 신라 향가의 정립 과정과 특징

핵심 포인트 ❶ 추모 ❷ 예찬 ❸ 죽음 ❹ 극락세계

1. ② **2.** ⑤ **3.** ④ **4.** ② **5.** ①

(가) 충담사, 「찬기파랑가」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한 노래이다.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가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작품이다.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숭고한 인격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고대 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는 찾아볼 수 없다.
-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찬양
- **표현상의 특징**
  ① 인물의 면모를 자연물에 빗대어 예찬함.
  ② 감탄사를 통해 정서를 고양함.
- **구성**

1~5구	기파랑의 고결함과 그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
6~8구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고 싶은 마음
9~10구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 예찬

(나) 월명사, 「제망매가」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승려 월명사가 누이의 요절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10구체 향가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빼어난 비유 구조 속에 녹여 넣어 고도의 서정성과 문학성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10구체 향가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아 왔다.
- **주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빎.
- **표현상의 특징**
  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빗댐.
  ②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종교적 구도의 의지를 보여 줌.
- **구성**

1~4구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5~8구	누이의 요절에서 느끼는 무상감
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의지

1. **| 갈래의 특성 이해 |**

지문에서는 향가가 애당초 향찰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노래가 먼저이고 그것을 표기하는 데 향찰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초의 향가가 향찰로 창작된 기록 문학이었으나 점차 구비 전승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고구려와 백제의 노래는 노랫말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전하는 제목으로 보면 아마도 지역적 특색과 관련된 향토적인 노래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③ 4구체는 민요 또는 의식과 관계되는 소박한 양식이었을 것이고, 이처럼 단순한 형태 둘이 모여 8구체가 생겼으며, 거기에 다시 두 줄을 덧보태 10구체가 됨으로써 완결성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

④ 지문의 설명에 따르면 향가의 쇠퇴 원인 중에는 화랑 계층이 쇠잔해지고 불교가 귀족화된 사회적 상황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10구체 향가의 쇠퇴에는 문학 외적 요소인 사회적 변동도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제망매가」에 대한 기록에는 "이 노래를 부르자 문득 바람이 일어 제단의 종이돈을 서쪽으로 날렸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일종의 주술적 기능의 효과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2.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가)는 1~5구, 6~8구, 9~10구처럼 시상의 전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나)는 내용상 1~4구, 5~8구, 9~10구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오답 분석

① (가)의 화자는 부재하는 기파랑을 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향가의 내용적 전형성, 즉 '바람[願]'으로 압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9구는 '아아'라는 감탄사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드높은 기파랑의 절개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이어짐으로써 정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③ (나)는 누이를 여읜 슬픔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다가 '아아'라는 감탄사로 시작되는 9~10구에서 종교적 구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서의 전환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는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부른 노래이다. 그러므로 지문에서 설명한 대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해 |

'자갈 벌'은 기파랑이 현재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이다.

오답 분석

① 기파랑을 추모하는 (가)에서, 달이 떠간 언저리를 '흐느끼며' 바라보는 화자는 기파랑의 부재로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A]에 따르면 대상, 즉 기파랑이 지닌 숭고함이 드러난다고 하였으므로, 흰 구름을 따라 떠가 버린 '달'은 우러를 만한 기파랑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⑤ [A]에 따르면 기파랑은 맑은 성품과 드높은 기상을 지녔던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래 가른 물가'는 그의 맑은 성품을 환기하고, 그의 드높은 기상은 '잣나무 가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높은 기상을 지닌 존재는 '눈' 같은 시련과 역경으로도 덮을 수 없다고 하였다.

4.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것은 화자가 아니라 누이이다. 따라서 (나)를 감상할 때, '간다는 말도' 미처 못 하고 누이 곁을 떠났던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다고 하면 작중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분석

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화자는 '생사 길'이 '여기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③, ④ 이 시의 5~8구를 이루는 비유적 표현에서, '어느 가을'에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 그 잎이 '이른 바람'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이가 요절했음을, 즉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드러낸다. 또 '한 가지'에 났다는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화자와 누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인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화자는 9~10구를 통해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다.

5. | 시어의 의미 이해 |

ⓐ는 기파랑의 드높은 절개와 기상을 상징하므로 대상의 자질을 환기한다는 말이 적절하다. 그리고 ⓑ는 화자와 죽은 누이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간임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분석

② ⓐ는 화자가 지닌 이상과 무관하고, ⓑ는 화자의 존재론적 한계와 관련이 없다.

③ ⓐ는 화자의 자부심이 아니라 대상의 자질과 관련이 있고, ⓑ는 대상과 화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낼 뿐 연민을 드러내는 것과 무관하다.

④ ⓐ는 화자가 부딪힌 현실적 고난이 아니라 화자가 기리는 기파랑의 모습을 의미하고, ⓑ는 화자의 태생적 고독을 환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탈속적 태도는 속세에서 벗어나려는 태도이므로 ⓐ가 대상이 지닌 탈속적 태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의 화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가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27~29쪽

03 가시리 / 서경별곡

핵심 포인트 ❶ 이별 ❷ 소극적인 ❸ 이별 ❹ 사공

1. ⑤ **2.** ① **3.** ③ **4.** ③

가 작자 미상, 「가시리」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기 – 승 – 전 – 결'의 간결한 형식을 띠는 전 4연으로 각 연은 2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연 사이에는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 이 노래는 남녀 간 이별의 정한(情恨)을 형상화한 것으로, 임을 보내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직설적인 어조로 표현하여 그 감정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형상화한 이별의 정한은 민요 「아리랑」이나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접맥되어 있어, 이 같은 전통적 정조가 우리의 문학사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여 준다.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표현상의 특징**
  ① 여음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② '기(하소연) – 승(원망) – 전(체념) – 결(소망)'의 구성을 취함.
  ③ 이별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함.
- **구성**

1연	임과의 이별
2연	떠나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
3연	이별에 대한 체념
4연	곧 돌아와 달라는 부탁과 기원

(나)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읊은 전체 3연의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생활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구슬'과 '끈'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다. 3연에서는 임을 싣고 떠나는 뱃사공을 원망하며 이별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임의 변심을 우려하는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고전 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이고 인종의 미덕을 간직한 여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표현상의 특징**
  ①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
  ② 2연에 다른 고려 가요 「정석가」의 6연과 동일한 가사가 나옴.
  ③ 화자의 정서를 반복법, 설의법 등을 통해 진솔하게 드러냄.
- **구성**

1연	이별을 거부하는 연모의 정
2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3연	떠나는 임에 대한 불안감과 사공에 대한 원망

1. |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

(가)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만류하고자 청자인 임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막고자 청자인 사공에게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나)에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간절함을 담은 기원의 어조가 보이지 않는다.
③ (나)의 화자는 정서를 절제하기보다 질투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거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 | 시어의 기능 파악 |

(가)에서 '가시리잇고'의 '잇고'를 생략하고 '가시리'라고만 표현한 것은 행의 시작을 세 글자로 통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칙적인 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잇고'를 생략하여 표현한 것이다.

3. | 형식과 내용상 특징 파악 |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오는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이는 임이 떠난다면 나는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하소연이 고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3 · 3 · 2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고, 시가를 읊을 때 한 호흡 단위로 느껴지는 운율 단위인 음보가 3음보로 되어 있다.
②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후렴구로 작품의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별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는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자신에게 부닥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 | 시어의 의미 |

베를 짜는 일은 유부녀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장성한 처녀나 부인네들의 일이었다. 또 질삼 뵈를 버리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가정의 의미보다는 삶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대평셩ᄃᆡ'는 이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임금의 선정을 칭송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작품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여음구이다.
② '쇼셩경'은 평양을 가리키는 곳으로, 화자가 이제까지 애착을 가지고 살아온 정든 고향을 의미한다.
④ '구슬'은 임과 화자의 사랑을 의미하므로, 구슬이 바위에 부서진 것은 임과 화자의 사랑에 시련이나 장애가 닥친, 즉 이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긴(끈)'은 이별에도 불구하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의미한다.

30~32쪽

04 정석가

핵심 포인트 ❶ 불가능한 ❷ 나라 ❸ 사랑

1. ⑤ 2. ② 3. ③ 4.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마음을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기법을 통해 드러낸 고려 가요이다. 이 노래에서 '임'은 임금 혹은 연인으로 볼 수 있다. '임'을 임금으로 본다면 제1연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부분과 연관 지어 이 작품을 신하나 백성이 임금에게 바치는 송축의 노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을 연인이라고 본다면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며 이별을 거부하는 의지를 드러낸 노래로 볼 수 있다. 이때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1연의 내용은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편입되면서 필요에 의해 덧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내용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하여 가정함으로써 임과 헤어지기 싫다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한 시적 발상이 드러난 본사(제2~5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6연의 내용은 「서경별곡」의 제2연과 내용상 거의 동일하여 두 작품의 상호 영향 관계를 짐작해 보게 한다.
- **주제**: 태평성대의 기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표현상의 특징

①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반어적으로 드러냄.

②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면서 상황과 정서를 강조함.

• 구성

서사(제1연)	태평성대를 소망함.
본사(제2~5연)	유덕하신 임과의 이별을 거부함.
결사(제6연)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영원함

1. | 표현상 특징 및 효과 파악 |

이 글에서는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작품의 주된 정서도 자연 친화와 무관하다.

오답 분석

① 모든 연에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② 2~5연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과장법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임과 이별하기 싫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긴힛ᄃᆞᆫ 그츠리잇가'는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는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④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이나 '므쇠로 텰릭을 ᄆᆞᆯ아 나ᄂᆞᆫ'의 '나ᄂᆞᆫ'은 음률을 맞추기 위해 삽입한 의미 없는 여음구이다.

2. | 시어의 의미와 기능 이해 |

제3연에서 화자는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에 접붙여서 세 무더기가 피어나야만 임과 헤어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옥으로 새긴 연꽃은 생물이 아니므로 접붙이기를 한다고 해서 세 무더기가 피어날 수 없고, 더구나 접을 붙이는 대상도 생명력이 없는 바위이기 때문에 가정된 상황의 실현 불가능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므로 ⓐ는 생명력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 소재이다. 한편 제6연에서 ⓑ는 구슬이 떨어져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꿰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시적 진술에 등장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는 끈을 끊어 놓지는 못하지만 구슬은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한 속성이 강조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와 ⓑ 모두 화자가 동경하거나 증오하는 대상일 수 없다.

③ ⓐ는 굳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임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하다. 또 ⓑ가 등장하는 제6연이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긴 하지만, ⓑ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④ ⓐ와 ⓑ 모두 주술과는 무관하며 화자의 소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⑤ ⓐ와 ⓑ 모두 임이 화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증거물로 기능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임이 화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3.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제2연의 '유덕ᄒᆞ신 님믈 여ᄒᆡᄋᆞ와지이다'는 임과의 이별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임과 헤어지겠다는 것이므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서사에 해당하는 제1연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션왕셩ᄃᆡ'와 같은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다는 내용으로 드러나 있다.

②, ④ 〈보기〉에 따르면 본사 부분은 동일한 발상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생성과 소멸의 시어들을 대칭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찾을 수 있다. 제2~5연이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하는 기법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성에 해당하는 '퓌거시아'(제3연)와 소멸에 해당하는 '헐어시아'(제4연)는 대칭 관계를 이루는 시어로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제6연은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긴(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 화자 자신과 임이 따로 떨어져 살아가더라도 서로 간의 믿음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기 분석

「정석가」의 구조 분석

작품의 구조를 '서사 – 본사 – 결사'로 나누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글이다. 각 구성 단계별 내용과 표현 기법,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4. | 작품 간 비교 감상 |

〈보기〉에 따르면 두 작품 모두 고려 시대에 다수 민중에 의해 창작, 향유되다가 궁중악으로 편입된 노래라고 하였다. 그러한 유사성을 가진 별개의 두 작품 가운데 [A]와 [B]처럼 내용상 거의 동일한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간에서 유행하던 노래의 해당 구절이, 두 작품이 궁중악으로 편입되기 전 혹은 편입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녹아들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 따르면 [A]와 [B] 모두 한글로 기록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창작 목적이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리라고 추론할 만한 근거는 없다.

② 두 작품이 궁중악으로 편입될 때 [A]와 [B]가 덧붙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을 한 주체가 임금일 것이라는 추정은 근거가 없다.

③, ④ [A]와 [B]가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고 해서 두 작품이 원래는 한 작품이었을 것이라든지 두 작품을 동일한 개인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보기〉에서 두 작품 모두 다수 민중에 의해 창작, 향유된 속요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05 한림별곡

핵심 포인트 ❶ 과시 ❷ 풍류 ❸ 과시

1. ⑤ 2. ④ 3. ① 4. ④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경기체가로, 고려 시대 귀족 계층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학관과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노래이다. 제1~3장에서는 다양한 사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사들의 학문에 대한 기개와 자부심을 드러내고, 제4~8장에서는 신흥 사대부들의 향락적 생활과 풍류를 과시한다. 작가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물의 열거를 중심으로 태도를 간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신진 사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향락적 풍류
- **표현상의 특징**
  ① 전체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병렬적 구성을 보임.
  ② 열거법, 영탄법, 설의법, 반복법 등이 사용됨.
  ③ 주로 3 · 3 · 4조의 3음보 율격을 보임.
- **구성**

제1장	시인과 문장 예찬
제2장	학문 수련과 독서에 대한 자긍심
제8장	그네 뛰는 흥겨운 정경과 풍류 생활

1. | 표현상 특징 파악 |

〈제8장〉에는 색채를 드러내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통해 대상이 지닌 모순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제1장〉은 문인들의 명문장과 과거 시험장의 풍경을, 〈제2장〉은 유명한 서적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각 장에서 '엽'으로 시작되는 시행은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높이고 있다.
③ 연마다 '위~ㅅ 경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구조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④ 각 장의 1, 2행은 3 · 3 · 4조의 글자 수 배열을 통해 운율의 규칙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제2장〉에는 피지배 계층에게도 풍부한 독서 경험을 장려하는 귀족층의 계몽적 의도가 표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층에 속하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자랑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오답 분석

① 〈제1장〉과 〈제2장〉에는 한자어와 학문적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이 작품이 한문으로 된 학문을 향유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춘 귀족층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 문학 갈래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제1장〉에는 유원순, 이인로, 이공로, 이규보, 진화, 유충기, 민광균 등 작자 자신들과 같은 귀족층이 지닌 작문 능력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③ 〈제1장〉에서 '금ᄒᆞᆨ수의 옥순문ᄉᆡᆼ'을 언급하는 것은 학사 금의의 문하에 옥으로 된 죽순처럼 뛰어난 제자들이 많다는 점을 자랑하는 것이다.
⑤ 〈제8장〉은 그네를 뛰는 흥겨운 정경과 풍류 생활을 예찬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언급한 일상의 풍류와 향락적 흥취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분석

「한림별곡」의 창작 배경

경기체가의 대표작으로서 「한림별곡」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그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이다. 작품이 창작된 때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문학계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 비교 감상의 적절성 평가 |

거의 모든 시어가 한자어로 되어 있는 [A]에 비해 [B]에서는 순우리말이 좀 더 많이 사용되어 그네 뛰는 흥겨운 정경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② 관념적 사실에 대한 진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B]가 아니라 [A]라고 할 수 있다.
③ [A]는 시험장의 모습, 책을 읽고 외우는 모습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이 대상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B]에서는 나무에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매고 정 소년으로 하여금 그네를 밀게 하는 정경이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A]와 [B]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무관하다.
⑤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B] 역시 나무에 그네를 매는 것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특정 인물에게 그네를 당기고 밀라는 명령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시상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4. |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

㉠은 여러 서적에 적힌 주해의 내용까지를 아울러서 다 외우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해 과시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작품의 정서는 어떤 대상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것과 무관하다.
② ㉠은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학문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③ 이 작품에는 이상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은 그에 대한 동경과 무관하다.
⑤ ㉠은 애상적 정서, 즉 슬픔과 관련이 없다.

35~36쪽

06 용비어천가

핵심 포인트 ❶ 새 왕조 ❷ 예찬

1. ③ 2. ④ 3. ⑤ 4.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세종 27년에 정인지를 비롯한 학자들이 지은 125편짜리 장편 서사시이자 악장 문학의 대표작이다. 목조부터 태종까지 여섯 명의 선조들이 쌓은 업적을 예찬하고,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와 백성들에 대한 교화를 담고 있다. 이는 이 노래가 왕조 교체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창작된 목적 문학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사적 찬양 및 후왕에 대한 권계
- **표현상의 특징**
  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 작품임.
  ② 중국 제왕의 사적과 조선 왕조의 사적을 나란히 제시하며 예찬함.
- **구성**

서사(제1~2장)	조선 개국의 정당성과 조선의 무궁한 발전 송축
본사(제3~109장)	사조(四祖)와 선왕인 태조, 태종의 업적
결사(제110~125장)	후대 왕에 대한 권계

1.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제1장〉과 〈제125장〉은 모두 점층적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층적 전개를 통해 지배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제1장〉의 시행들은 '-시니'로, 〈제2장〉의 시행들은 '-ᄂᆞ니'로 종결 방식이 통일되어 있다.
② 〈제2장〉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자연 현상과 샘이 깊은 물이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는 자연 현상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둘은 기본이 튼튼한 존재에게 발전된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제1장〉에는 이처럼 유사한 자연 현상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제2장〉에는 구체적인 청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125장〉에는 '님금하 아ᄅᆞ쇼셔'에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1장〉이나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 시어 및 시구의 의미와 기능 이해 |**

'누인개국'은 선왕들이 후대의 왕들에게 물려주는 미완의 과제가 아니라, 선왕들이 이미 천세 전에 미리 정해 둔 터에서 완수한 일에 해당한다.

오답 분석

① '해동'은 우리나라를, '육룡'은 여섯 명의 선왕을 가리킨다.
② 뿌리가 깊은 나무라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시구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라는 시구는 조선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천세 우희'는 한강 북쪽 땅에 미리 조선 건국의 터를 잡은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맥락상 이는 조선의 건국이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⑤ 아무리 성스럽고 신령한 후손이 왕위를 이어 나가더라도 '경천근민', 즉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힘써야만 나라가 더욱 굳건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천근민'은 후대의 왕을 깨우치기 위해 강조하는 덕목으로 볼 수 있다.

3. **| 시구의 의미 이해 |**

㉤은 '할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까?' 정도의 의미로, 할아버지인 우왕의 공만 믿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하나라 태강왕의 사례를 통해 후대의 왕에게 경계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하는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은 '일마다 하늘이 내린 복이시니'라는 뜻이므로 왕조의 발전을 송축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② ㉡은 선왕들의 행적이 중국의 옛 성인들의 그것과 부절을 맞춘 듯이 일치한다는 진술이므로, 조선의 건국이 정당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샘이 깊은 물이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정도의 의미이므로 왕조의 무궁한 발전과 관련 있는 표현이다.
④ ㉣은 '하늘이 점지해 준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시니' 정도의 의미이므로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4. **| 시어의 기능 파악 |**

ⓐ인 '한수 북', 즉 한강 이북은 어진 일이 누적되어 나라가 열린 공간이므로 긍정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한편 ⓑ는 하나라 태강왕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던 곳이므로 후대의 왕에게 삼가야 할 행동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오답 분석

① ⓐ는 윤리적 자각 촉구와 무관하고, ⓑ도 쾌락을 좇은 곳이므로 세속적인 가치의 지양과 거리가 멀다.
② ⓑ는 하나라 태강왕이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냥을 즐긴 곳이므로 공동체적 결속이 강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는 타인을 비난할 근거 마련과 무관하고, ⓑ는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위해 언급된 공간이다.
④ ⓑ가 현재보다 조화로웠던 과거를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01 오백 년 도읍지를~ / 흥망이 유수ᄒᆞ니~ / 선인교 나린 물이~

핵심 포인트 ❶ 고려 ❷ 인간사 ❸ 고려 ❹ 수용

1. ④ **2.** ④ **3.** ② **4.** ③

가 길재, 「오백 년 도읍지를 ~」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회고가의 대표작으로, 고려 말 학자인 길재가 고려의 멸망과 관련하여 느낀 한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다. 조선이 들어서자 벼슬을 사양한 채 필부의 신분으로 고려의 옛 도읍지를 찾아간 그는 유구한 자연과 무상한 인간사를 대조하여 허무감, 무상감 같은 주된 정서를 드러내었다.
-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인생무상
- **표현상의 특징**
  ① 대구와 대조를 통해 정서를 부각함.
  ② 영탄법을 활용하여 정서를 집약함.
- **구성**

초장	고려의 옛 도읍지를 찾아감.
중장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사
종장	인간사에 대해 느끼는 무상감

나 원천석, 「흥망이 유수ᄒᆞ니 ~」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고려 말의 학자였으나 조선 개국 이후 치악산에 은거하면서 태종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았던 원천석이 지은 작품이다. 탄식의 어조 속에 고려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잘 담아 내었다.
- **주제**: 고려 왕조의 회고와 무상감
- **표현상의 특징**
  ①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무상감을 드러냄.
  ② 종장에서 자신을 '객'으로 객관화하여 지시함.
- **구성**

초장	왕조의 정해진 운수
중장	덧없이 흘러가 버린 고려 왕조의 영광
종장	망국으로 인한 슬픔

다 정도전, 「선인교 나린 물이 ~」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고려의 신흥 사대부였다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된 정도전이 지은 작품이다. 고려 왕업의 자취가 사라진 것에서 느끼는 무상함을 노래하면서도 망국의 슬픔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또한 역사적 필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애상감을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고려 왕업의 무상함
- **표현상의 특징**
  ① 영탄법, 설의법을 통해 정서적 태도를 강조함.
  ②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함.
- **구성**

초장	선인교와 자하동을 흐르는 물
중장	물소리밖에 남지 않은 고려의 도읍지
종장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왕조의 흥망성쇠

1. | 표현상 특징 파악 |

ㄴ. (가)와 (나)에는 청자를 호명한 부분이 없다. 그러나 (다)의 종장에서는 '아희야'라고 호명한 청자에게 건네는 말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ㄴ은 적절한 설명이다.

ㄹ. (나), (다)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가)의 종장 첫머리에는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통해 고려의 태평연월이 꿈과 같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무상감의 집약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ㄹ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분석

ㄱ. (다)의 '물소ᄅᆡ쇤이로다'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하동이라는 공간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한편 (나)에서도 '목적에 부쳐시니'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오백 년 왕업의 위엄과 영광이 온데간데없고 한낱 목동의 피리 소리만 들려오는 쓸쓸한 만월대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ㄱ은 적절하지 않다.

ㄷ. (다)의 종장은 고국의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겠느냐는 설의적 진술로 흥망의 덧없음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부각한 것은 (나)가 아니라 (다)이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보기〉에 따르면 (다)의 작자가 고려의 신흥 사대부이자 조선의 개국 공신인 것은 맞다. 그러나 '반천 년 왕업이 물소ᄅᆡ쇤'이라는 시구는 고려의 궁궐이 있던 개성이 옛 영화는 찾아볼 길 없이 쓸쓸한 모습임을 애달파하면서 인간사의 덧없음을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작자가 고려 왕조에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게 된 이유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서 (가)의 작자는 고려의 유신을 자처하고 조선의 중용 제의에 불응한 채 은거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필마로 도라드니'는 한 필의 말을 타고 혼자서 돌아본다는 것이므로 조선에서 벼슬자리를 거부한 작자의 선택과 관련지어 이해해 보는 관점도 가능할 것이다.

② '태평연월이 **꿈**'이라는 말은 고려 왕조가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그 옛날의 일이 꿈만 같다는 뜻이므로 고려의 멸망에서 느낀 작자의 쓸쓸함과 무상감이 드러나 있는 시구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때, (나)에서 '석양'은 멸망하는 고려를, 지나는 '객'은 그렇게 몰락하는 고려의 유신인 작자 자신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시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⑤ 〈보기〉에 따르면 (다)의 작자는 왕조가 바뀌는 일조차 역사적 당위의 일부로 간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희'에게 고려의 흥망성쇠를 물어서 무엇하겠느냐고 묻는 진술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애달파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다.

3. | 시구의 의미와 기능 이해 |

㉠은 '의구'한, 즉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산천'(자연)과 달리 '간 듸 업'는 '인걸'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 준 시구이다. 이를 통해 자연사와 대비되는 인간사를 덧없게 느끼는 심정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산천'과 '인걸'은 유사성을 지닌 대상이 아니라 대조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가)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도 아니다.

③ (가)의 화자가 자연에 귀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며, ㉠에서 '산천'은 '인걸'을 품어 주는 너그러운 존재라기보다는 온데간데없는 '인걸'과 달리 변함이 없는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④ '의구'한 것은 '산천'이고 '간 듸 업'는 것은 '인걸'이므로 '의구하던 것이 '간 듸 업'는 현실을 언급하여 부정적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변화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구ᄒᆞ되'와 '간 듸 업다'는 서로 대조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화자가 느끼는 인간사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일 뿐 화자와 타인 간에 벌어진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4. | 작품 간 비교 감상 |

ⓐ는 의인화되어 있지 않지만, 〈보기〉의 종장에서 '너'로 지칭되는 ⓑ는 의인화되어 있다.

오답 분석

① ⓐ는 화자에게 무상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지만, ⓑ는 화자가 그 곧은 절개를 예찬하는 대상이다.

② ⓑ는 눈이 내려 한쪽 방향으로 쌓임으로써 비록 잠시 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곧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 푸른 빛깔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적 상황의 변화에도 본질을 유지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④ ⓐ는 가을날 시든 풀이고 ⓑ는 겨울날 눈 속의 대나무이므로, 둘 다 계절적 배경과 결부되어 있는 소재이다.

⑤ ⓐ를 통해서는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를 통해서는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선비 혹은 신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므로, 둘 다 인간 세상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분석

원천석의 「눈 마ᄌᆞ 휘여진 ᄃᆡ를~」

고려의 신하였던 원천석의 또 다른 작품을 〈보기〉에 제시하여 작품 간 비교 감상을 유도하고 있다. 눈 속에서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에 의탁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작가의 지조를 드러낸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눈'은 새 왕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는 무리들을, '대나무'는 절개 있는 충신을 의미한다.

08 어져 내 일이야~/묏버들 갈히 것거~/이화우 흣뿌릴 제~

핵심 포인트 ❶ 그리워함 ❷ 이별 ❸ 가을

1. ④ **2.** ① **3.** ④ **4.** ⑤

가 황진이, 「어져 내 일이야 ~」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기녀 황진이가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화자가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말의 맛을 잘 살린 점, 특히 '제 구ᄐᆡ야'의 중의성을 활용하여 표현의 묘미를 높인 점이 특징적이다.
- **주제**: 이별의 회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① 도치법 혹은 행간 걸침을 통해 '제 구ᄐᆡ야'가 해석상의 중의성을 띰.
  ② 감탄사로 시상을 촉발하여 정서 표현을 선명하게 함.
- **구성**

초장	붙잡았으면 가지 않았을 임
중장	보낸 후에야 그리워하는 애틋함
종장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

나 홍랑, 「묏버들 갈히 것거 ~」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기녀 홍랑이 이별한 임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호소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을 '묏버들'을 떠난 임에게 보내면서 부디 자신을 가까이 둔 것처럼 여겨 달라고 당부하며 항상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임에 대한 사랑
- **표현상의 특징**
  ①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태도와 정서를 표현함.
  ② 도치법과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활용함.
- **구성**

초장	임에게 버들가지를 꺾어 보냄.
중장	버들가지를 창밖에 심어 두라고 권함.
종장	자신을 잊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함.

다 계랑, 「이화우 흣뿌릴 제 ~」

- **작품 해설**: 이 시조는 기녀였던 계랑이 한번 떠난 후 소식이 없는 정든 임 유희경을 그리며 읊은 노래이다. 임과 헤어진 뒤 훌쩍 흘러버린 시간적 거리감과 임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간적 거리감을 조화시키고, 하강 이미지를 활용해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①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② 봄과 가을 사이의 시간적 거리감, 임과 자신 사이의 공간적 거리감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함.

• 구성

초장	봄에 임과 이별함.
중장	가을에 임을 그리워함.
종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그리워함.

1.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다)는 '이화우', '추풍낙엽' 등을 통해 하강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에는 하강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분석

① (가)의 '어져'는 '아!'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후회의 의미를 환기하는 감탄사이다.

② (나)는 자기를 떠난 임에게 버들가지를 가려 꺾어 보내 드릴 테니 창밖에 심어 두고 보면서 새잎이 나면 '나'를 본 듯 여겨 달라는 당부를 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이화우 흣뿌릴 제'인 봄에서 '추풍낙엽'의 가을까지라는 시간적 거리감, 그리고 임과 자신 사이의 '천 리'라는 공간적 거리감을 조화시켜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부각하였다.

⑤ (나)에서는 '묏버들', '새닙'을, (다)에서는 '이화우', '추풍낙엽'을 활용하여 계절감을 환기했으며, 이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가)의 '이시랴 ᄒᆞ더면'은 만약 화자 자신이 임에게 '있으라고 말했더라면'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로 인해 임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답 분석

② 〈보기〉에 따르면 (가)의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은 신분적인 한계 같은 사회적 조건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던 기녀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 또 이는 굳이 임을 보내 놓고 나서야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③ (나)의 화자는 현재 임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가 보내는 '묏버들'을 임이 '자시ᄂᆞᆫ 창밧긔' 심어 두고 보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시구는 화자가 임과 함께 있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다)의 화자가 임과 이별한 것은 신분적인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관계를 지속될 수 없었던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화자는 '천 리'나 떨어져 있는 임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기 때문에 '외로운 ᄭᅮᆷ'만 오락가락한다고 말한 것이다.

3. |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과 ㉡ 중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더라도 '제 구ᄐᆡ야'는 화자가 느끼는 후회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경우, 자신이 임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더라면 임이 가지 않았을 텐데 굳이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후회와 관련이 있고, ㉡의 경우는 화자 자신이 굳이 보내 놓고 그리워하는 현재의 자기 상황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①, ② ㉠은 '제 구ᄐᆡ야'가 내용상으로도 중장에 속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제 구ᄐᆡ야'는 바로 앞에 있는 '가랴마ᄂᆞᆫ'과 도치가 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여기서의 '제'는 떠난 임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중장이 '(내가) 있으라고 했더라면 임이 구태여 갔으랴만'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③, ⑤ ㉡의 관점을 따를 때 종장은 '내가 구태여 임을 가라고 해서 보내 놓고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나도 모르겠구나.'와 같은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때 '제'는 임을 보내 놓고 그리워하는 주체인 화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작자가 의도적으로 행간 걸침을 시도함으로써 표현의 묘미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 시어의 기능 파악 |

(나)의 화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임에게 ⓐ를 보내니 창밖에 심어 두고 보면서 새잎이 나면 자기를 본 듯이 여겨 달라는 당부를 한다. (다)의 화자는 이별 후에 시간이 훌쩍 흘렀음을 느끼게 해 주는 ⓑ를 보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에 잠기고 있다. 그러면서 '저도 날 ᄉᆡᆼ각ᄂᆞᆫ가'라고 하는데, 이는 '나'처럼 임도 ⓑ를 보면서 멀리 있는 옛 연인, 즉 '나'를 그리워할까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임도 '나'를 그리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와 ⓑ 모두 임이 자신을 떠올릴 것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투영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나)와 (다) 모두 임과 화자는 헤어져 있는 상황이며 ⓐ와 ⓑ도 그러한 이별 상황에서 언급되는 사물로, 임과 화자의 첫 만남을 매개해 주는 것과 무관하다.

② ⓐ와 ⓑ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된 사물이지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대변하는 사물이 아니다.

③ ⓐ와 ⓑ를 임이 화자에게 준 적은 없다.

④ ⓐ와 ⓑ에 의해 임과 화자 사이가 가로막히는 것은 아니다.

41~43쪽

09 「도산십이곡」의 창작 배경 / 도산십이곡

핵심 포인트 ❶ 자연 ❷ 온유돈후 ❸ 학문 ❹ 벼슬 ❺ 자연

1. ⑤ 2. ② 3. ② 4. ③

가 「도산십이곡」의 창작 배경

• **해제**: 이 글은 이황이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이황을 비롯한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자연 안에서 도학적 이상을 발견하고 성인의 자취를 쫓아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도(道)에 도달하는 것을 지극한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황은 당시 노래는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 되며, 불공한 뜻이 있고, 온유돈후한 것이 없다고 평하면서 성리학적 이상과 권학의 이념을 주제로 삼으면서 노래 부르기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운율적 요소를 갖춘 「도산십이곡」을 창작하였다고 하였다.

- **주제**: 이황이 생각한 당시 노래의 문제점과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이유
- **구성**

1문단	「도산십이곡」의 내용
2문단	조선 시대 선비들의 자연관과 학문관
3문단	이황이 생각한 당시 노래의 문제점과 「도산십이곡」을 창작한 목적

나 이황, 「도산십이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이황이 도산 서원에 머물며 지은 12수의 연시조이다. 작자는 이 작품을 전 6곡 · 후 6곡으로 나누고, 전 6곡을 '언지(言志)', 후 6곡을 '언학(言學)'이라고 했다. '언지'는 천석고황과 강호 은거의 즐거움을 읊었고, '언학'은 학문과 수양을 통한 성정의 순정을 읊었다. 이황은 이 작품을 짓게 된 동기를 「도산십이곡 발(陶山十二曲跋)」에서 "한림별곡류는 긍호방탕(마구 뽐내고 방탕함.)하고 설만희압(제멋대로 장난치고 함부로 굶.)하여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이별 「육가」는 완세불공(세상을 희롱하고 공손하지 못함.)의 뜻이 있고 온유돈후한 내용은 적다.", "국문 시가는 한시와는 달라서 노래할 수 있어서 흥이 난다."라고 말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기존의 시가에 대한 불만이고, 셋째는 국문 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한시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흥을 시조에서 찾고, 그 흥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담아 널리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와 학문 수양에 대한 끝없는 의지
- **표현상 특징**
  ① 동일한 구문의 사용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②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구성**

제1곡	자연에 동화된 삶
제6곡	자연에 사는 즐거움
제9곡	성현들의 삶을 따르려는 의지
제10곡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정진함.
제11곡	끊임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

1.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이황을 비롯한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자연을 심미적 대상으로 삼아 안빈낙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도학적 이상을 발견하고 성인의 자취를 쫓아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도(道)에 도달하는 것을 지극한 이상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오답 분석

① 조정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을 중히 쓰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으나, 이황은 한평생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②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벼슬에서 물러나 도산 서원에 머물 때 지은 노래라고 하였다.
③ 이황은 두 개의 「육곡」을 지었는데, 그 하나는 '지(志)'를 노래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학(學)'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④ 이황을 비롯한 조선의 선비들은 자연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도학적 이상과 진리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진락(眞樂)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2. |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여 만끽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초야 우생'과 '천석고황'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③ '녀던 길'은 '고인', 즉 성인(聖人)이 가던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성인의 자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몃 **히**'는 화자가 벼슬을 하느라 속세에 머물던 기간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이 학문에 전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어듸'와 '년 듸'는 화자가 학문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떠돌았던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곳은 조정의 간곡한 청에 의해 출사했던 화자의 벼슬 경험과 관련이 있다.

3. | 형식과 내용상 특징 파악 |

〈제6곡〉에서 '사시가흥이 사ᄅᆞᆷ과 ᄒᆞᆫ가지라'라고 한 것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에 담긴 흥이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가 이것을 성리학적 이상 또는 권학의 이념과 연결한 것은 아니며, 화자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터득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제1곡〉에서 '-ᄒᆞ료'로 각 행이 종결된 것은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9곡〉에서 '아니 녀고 엇뎔고'는 '고인'이 가던 길을 열심히 따르겠다는 것으로, 성리학적 이상과 권학의 이념에 대한 화자의 다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0곡〉에서는 4음보의 율격이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운율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제11곡〉에서 '우리도 그티디 마라'는 도를 향한 학문과 수양을 멈추지 말라는 것으로, 성리학적 이상과 권학의 이념에 대한 교훈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창작 과정 추론 |

이황은 이별이 지은 「육곡」 등은 공손한 뜻이 적고 온유돈후함이 없어 그 가치가 적다고 평하였다. 따라서 온유돈후한 내용

을 담아서 이별의 「육가」와 같이 세상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나)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떠올린 생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이황은 '동방의 가곡'이나 「한림별곡」과 같은 시가가 음탕하고 지나치게 흉허물 없이 친한 느낌이 드는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점잖고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겠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황은 성리학적 이상과 권학의 이념을 주제로 삼아 「도산십이곡」을 지었다고 했으므로, 자신이 지닌 뜻과 학문에 대한 생각을 열두 수의 노래에 담아 부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은 이황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

④ 이황은 '동방의 가곡'이나 「한림별곡」과 같은 시가는 음탕하고 방탕하며 지나치게 흉허물 없이 친한 느낌이 들어 군자(君子)가 숭상할 바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군자도 마음껏 숭상할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교만하고 방탕한 내용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

⑤ 이황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 노래를 아침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함으로써, 비루한 마음을 씻고 감발하며 화창하여,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모두 유익함이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44~46쪽

10 어부사시사 / 어부단가

핵심 포인트 ❶ 어촌 ❷ 만족 ❸ 나라

1. ③ **2.** ② **3.** ① **4.** ⑤ **5.** ④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춘(春), 하(夏), 추(秋), 동(冬) 사계절을 각각 10수씩 읊은 40수로 된 조선 후기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부 생활의 흥취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혼탁한 속세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며 물아일체된 삶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다. 또한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마치 자신이 인간 세상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주제**: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
- **표현상의 특징**
  ① 사계절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함.
  ③ 대조적인 공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냄.
  ④ 여음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어부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흥취를 돋움.
- **구성**

춘사 4	어촌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하사 2	소박하고 자연에 동화된 삶
추사 1	어부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가을 강의 흥취
동사 4	눈 덮인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 예찬

나 이현보, 「어부단가」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준 연시조로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개작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전기의 연시조이다. 화자 자신을 어촌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로 설정하여 속세를 잊고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연에서 한양을 돌아보며 임금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어부의 한정(閑情)
- **표현상의 특징**
  ①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나타냄.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구성**

제1수	세상사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삶
제2수	유유자적하는 삶
제3수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부심
제4수	어부의 자연에 동화된 삶
제5수	속세에 대한 미련과 우국지정

1. | 표현상 특징 파악 |

(가), (나)의 화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 시절을 대비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가)는 〈추사 1〉의 초장에, (나)는 〈제1수〉의 종장과 〈제5수〉의 중장과 종장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에는 〈춘사 4〉의 '뻐꾸기'의 울음소리와 푸른 '버들 숲', 그리고 〈동사 4〉의 '만경류리'와 '천협옥산' 등에, (나)에는 〈제2수〉의 '만첩청산'과 '십장홍진', '월백', 그리고 〈제3수〉의 '청하', '녹류' 등에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④ (가)와 (나)의 화자는 어부로 설정되어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자연에 은거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연 경치를 배경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는 〈춘사 4〉의 초장과 〈동사 4〉의 중장에서 대구의 형식이 쓰이고 있다. (나)에는 〈제2수〉의 초장, 〈제3수〉의 초장, 〈제4수〉의 초장에서 대구의 형식이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2.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배의 운항과 관련된 행동을 지

시하는 내용으로, 각 수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일과를 순서대로 노래하여 작품에 사실감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는 각 계절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등장하고 있을 뿐 계절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화자는 어부로서의 흥에 흠뻑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춘사 4〉와 〈동사 4〉에 자연 경치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만,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는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나)의 〈제1수〉에는 '인세'를 다 잊고 한가롭게 지내는 어부의 삶이 나타나 있다.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일엽편주'는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의 기능을 할 뿐 어부의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분석

② 자연 경치를 '천심녹수', 즉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과 '만첩청산', 즉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자연물이 '십장홍진', 즉 어수선한 속세를 가려 주는 것으로 주관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③ 〈제3수〉의 종장 '일반청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고'에서 화자 자신처럼 자연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화자는 '한운(한가로운 구름)'과 '백구(갈매기)'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세속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⑤ '천 리'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머물러 있는 곳과 임금이 계신 한양과의 거리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제세현'은 '세상을 구할 인재'로, 북궐에서 임금을 도와 정치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에는 이들이 강호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는 '어부'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기〉를 통해 (가)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자연에 묻혀 사는 '은자(隱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자연 경치의 일부로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를 실제 어부가 아니라 자연 경치를 즐기는 '가어옹'으로 보았을 때, ㉡의 배를 띄우는 소리는 아름다운 바다의 경치를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설렘과 기대감이 고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의 '그림'은 문맥상으로 볼 때 자연 경치를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삶을 그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며, (가)의 화자가 어부로서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십장홍진'은 아주 두텁게 쌓여 있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어수선한 속세를 비유한 말이다. 이를 가려 주는 '천심녹수', '만첩청산', 즉 자연과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다.

보기 분석

「어부사시사」와 「어부단가」에 나타난 화자의 특성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한 글이다.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어촌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어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은자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내용이다.

5. |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

(나)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임금이 계신 '장안', 즉 한양을 돌아보며 우국충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묻혀 살아가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화자는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 경치를 즐기고 있으며, 특히 〈동사 4〉의 '선계ㄴ가 불계ㄴ가 인간이 아니로다'에서는 화자 자신이 신선이 산다는 '선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② (나)의 〈제1수〉~〈제4수〉를 보면 화자는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속적 욕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심'이라는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사계절 내내 자연에서 흥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사 2〉의 '년닙희 밥 싸 두고 반찬은란 쟝만 마라'에서 안빈낙도하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추사 1〉의 중장에서 화자는 '어옹을 웃디 마라'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지 말라고 하고 있다. 또한 초장에서 '물외예 조흔 일이 어부 생애 아니러냐'라며 세속을 벗어난 곳에서 깨끗하게 사는 일이 어부의 생활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7~48쪽

11 개를 여나믄이나 기르되~ / 나모도 바히돌도~

핵심 포인트 ❶ 원망 ❷ 안타까움 ❸ 비교 ❹ 슬픔

1. ④ **2.** ③ **3.** ③ **4.** ③

(가) 작자 미상, 「개를 여나믄이나 기르되 ~」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을 기다리는 심정을 '개'를 소재로 한 일상어를 통해 소박하고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으로 변하는데, 그 원망을 개에게 전가해 표현하고 있다.
-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표현상의 특징**
  ① 짖는 개 때문에 임이 오지 않는다는 발상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함.
  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얄미운 개의 행동을 과장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함.
- **구성**

초장	개에 대한 얄미움
중장	개의 행동(개가 얄미운 이유)
종장	개에 대한 원망

(나) 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돌도 ~」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을 여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비교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기발한 발상으로 극한적 상황을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처한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임과 이별한 절망적 슬픔
- **표현상의 특징**: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등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생생하게 드러냄.
- **구성**

초장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중장	여러 어려움을 만난 도사공
종장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에 견줄 수 없는 나의 마음

1. **| 표현상 특징 파악 |**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너 머길 줄이 이시랴', (나)에서는 '엇다가 ᄀᆞ을ᄒᆞ리오'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와 (나) 모두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는 '개'를 '너'라고 하며 말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나)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는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지 않지만, (나)의 중장에는 '대천'이라는 바다를 배경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도사공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⑤ (가)에서는 '캉캉'과 같은 의성어를 활용하여 개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의성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나)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매게 ᄠᅩ친 가토릐',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비교하여 이별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강조하고 있다. 중장의 '노, 닷, 돗대'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열거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도사공의 절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이별의 상황에 대한 여성의 체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가)는 '미운 님'과 '고운 님'이 올 때의 '개'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고, 〈보기〉에 따르면 상황의 대조를 통해 고운 님을 만날 수 없는 여성의 그리움을 강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는 '개'에게 이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보기〉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태도의 전가로 이별을 겪은 여성의 임에 대한 원망을 강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는 '엇그제 님 여흰'에서 고유어를 활용하고 있고, 〈보기〉에 따르면 고유어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나)는 '가토릐'와 '도사공'의 절박함과 화자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고, 〈보기〉에 따르면 비교를 통해 이별을 겪은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강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성

조선 후기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사대부만이 아닌 평민, 하층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화자가 시조에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설시조에는 이별을 겪은 여성의 정서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진솔하고 창의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보기〉 글은 그러한 다양한 표현 기법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쉰 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에서 쉰밥이 많이 생긴다는 가정의 상황을 통해 '개'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개'에 대한 화자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뛰락'의 반복을 통해 '미운 님'이 올 때 반기는 개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장에서 '개를 여나믄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라고 하며 '요 개'에 대한 화자의 얄미움을 드러낸 후 중장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쉰 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있으랴'에서 '개'를 '너'라고 하며 설의적 의문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개'는 '미운 님'을 반기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운 님'은 짖어서 돌아가게 하고 있어, 임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 | 작품의 창작 의도 이해 |

중장에서는 대천 바다 한가운데서 노도 닻도 잃고 수적(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주변의 풍광 묘사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초장에서 '매게 **堅**친 가토릐'를 통해 절박한 상황에 대한 단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장과 중장의 끝을 '안과'로 동일하게 끝냄으로써 시상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종장에서 '엇그제 님 여흰'을 통해 임과 이별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의 흐름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초장, 중장, 종장에 모두 '안'이라고 하는 고유어를 통해 절박한 상황의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을 임과 이별한 화자의 마음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9~51쪽

12 상춘곡

핵심 포인트 ❶ 안빈낙도 ❷ 흥취

1. ④ **2.** ③ **3.** ③ **4.** ④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안빈난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노래한 가사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묻혀 고고하게 살아가려는 내면적 의지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봄의 경치가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어 흥취와 풍류를 노래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주제**: 봄 경치에 대한 흥취와 안빈낙도(安貧樂道)
- **표현상의 특징**
  ① 감정 이입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②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냄.
  ③ 화자의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구성**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본사 1	봄의 아름다운 경치
본사 2	봄의 흥취
본사 3	산수 구경의 권유
본사 4	술과 풍류
본사 5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
결사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

[현대어 풀이]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고?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세상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건마는,
(그들은 왜) 자연에 묻혀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몇 칸짜리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었도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칼로 재단하여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구나.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니, 흥겨움이 다를 것이냐?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이리저리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풀 밟기는 오늘 하고, 개울에서 목욕하는 일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에서 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이제 막 익은 술을 칡베로 만든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술잔의) 수를 세어 가며 먹으리라.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스미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말하여라.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시를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 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 것인고?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잡아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벌여져 있네.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구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은 들판이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맑은 바람과 달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고?
누추한 곳에서 청빈한 생활을 하며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1. | 표현상 특징 파악 |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에서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것은 봄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권유일 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 때문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새봄', '도화 행화', '녹양방초', '춘기' 등 봄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단표누항'은 안빈낙도하는 삶의 자세를, '부귀', '공명'은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시어로, 이들 시어로 '부귀'와 '공명'

보다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릐마다 교태로다'에서 화자는 봄을 완상하며 느낀 즐거운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강조하고 있다.

⑤ '칼로 물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비가 내리는 봄의 풍경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B]는 상춘곡의 결사 부분으로 화자가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청풍명월을 벗 삼아 살겠다는 다짐과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A]에는 '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ᄒᆞᆫ고 / 녯사ᄅᆞᆷ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과시가 드러나지만, [B]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는 '홍진'과 '산림'의 공간을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부각하고 있지만, [B]에는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④ [B]에는 '공명도 날 ᄭᅴ우고 부귀도 날 ᄭᅴ우니'에서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려 하는 것을 주객을 전도시켜 표현하고 있지만, [A]에는 주객전도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A]의 '수간모옥'과 [B]의 '단표누항'을 통해 화자의 청빈한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보기〉에서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곳으로 묘사된다고 하였지만, '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는 한가로움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자신 혼자라는 뜻이므로, 홀로 마음을 수양하는 화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서 은일 가사에는 사대부들의 자연 속 풍류가 드러난다고 했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에 보면 자연 깊숙이 들어가 풍류를 즐기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은일 가사에는 사대부들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했고, '물아일체어니 흥이ᄋᆡ 다를소냐'에 자연과 일체가 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은일 가사에는 안빈낙도하는 삶의 명분을 찾는 사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고, '아ᄎᆞᆷ에 채산ᄒᆞ고 나조ᄒᆡ 조수ᄒᆞ새'에서 소박한 삶을 실천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는 은일 가사에는 자연을 완상하거나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고,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자연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은일 가사 속 사대부의 모습

시조를 포함하여 가사는 사대부들의 정치적,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통 창구이자 매개체였다. 〈보기〉의 글은 사대부들이 유배나 자연에 은거하는 중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정치적, 유교적 입장을 드러냈던 은일 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은일 가사 속 사대부의 삶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보기〉에 따르면, '시냇ᄀᆞ'는 화자가 취흥에 겨워 냇물 저편들이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시비'와 '정자'보다 심화된 탈속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곳에서 환상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세속적 공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수간모옥'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지은 집이다. 화자가 홍진에서 벗어났지만, '수간모옥'은 '집'이라는 세속적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자연'을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공존하므로, 속세와 자연의 경계에 놓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수간모옥'에서 '시비, 정자'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탈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시비'를 걸으며 한가로움의 참된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정자'는 '시비'와 함께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이 나타나는 공간이고, 화자가 물아일체로 흥취에 빠진 상황에 앉은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⑤ '봉두'에 올라 천촌만락을 내려다보며 자연을 완상하고 있고, '단표누항에 흣튼 혜음 아니 ᄒᆞ닉'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상춘곡」의 시상 전개

「상춘곡」에서 나타난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분류하여 나타낸 글이다. 공간이 이동하면서 화자의 자연에 대한 감정과 속세와의 거리감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 점점 속세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즉 탈속의 세계로 확장되어 감을 드러내고 있다.

52~54쪽

13 사미인곡

핵심 포인트 ❶ 일편단심 ❷ 정성

1. ⑤ **2.** ⑤ **3.** ② **4.** ③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반대파의 탄핵을 받은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창평에 내려가 있을 때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임을 생각하는 여인의 마음에 견주어 지은 가사이다. 다양한 표현 기법과 절묘한 언어 구사가 돋보이며 충신이 임금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 작품의 후편 격인 「속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백미를 이룬다.
- **주제**: 임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 연군지정(戀君之情)
- **표현상의 특징**
  ①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호소력을 높임.
  ③ 시간(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구성**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본사	춘원: 임에 대한 충성심을 전하고 싶음.
	하원: 임에게 외로운 마음과 자신의 정성을 전하고 싶음.
	추원: 임에게 선정을 갈망함.
	동원: 임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결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함.

1. **표현상 특징 파악**

'심산궁곡 졈낫ᄀᆞ티 ᄆᆡᆼ그쇼셔'에서 말 건네는 투의 표현이 드러나나, 이는 임의 선정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독백체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즉 이 글은 대화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ᄒᆞᆫ**ᄉᆡᆼ 연분이며 하**ᄂᆞᆯ** 모**ᄅᆞᆯ** 일이런가', '**ᄀᆞᆺ**득 시**ᄅᆞᆷ** 한**ᄃᆡ** 날은 엇디 기돗던고', '쳔리 만리 길**희** 뉘라셔 ᄎᆞ자갈고', '옥루고쳐야 더옥 닐러 므**ᄉᆞᆷᄒᆞ**리', '편쟉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ᄒᆞ**리'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와 임의 관계, 임과 이별한 화자의 상황과 정서 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 글의 화자는 임과 헤어져 지내는 외롭고 서글픈 처지를 여성의 목소리로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③ '**ᄎᆞᆯ**하리 싀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 곳나모 가지마다 간**ᄃᆡ** 죡죡 안니다가 / 향 므틴 **ᄂᆞᆯ**애로 님의 오**ᄉᆡ** 올므리라'에서 범나비가 되어 임에게 날아간다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임과 재회하고픈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ᄀᆞᆺ**득 **ᄂᆡᆼ**담**ᄒᆞᆫᄃᆡ** 암향은 므ᄉᆞ 일고'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매화의 속성(임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앙금도 ᄎᆞ도 **ᄎᆞᆯ**샤 이 밤은 언제 샐고'에서 추운 겨울밤을 홀로 지루하게 지새우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금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서 작가가 임금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고, '**ᄆᆡ**화'를 '님 겨신 **ᄃᆡ**'로 보내는 행동은 작가의 충절을 임금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작가가 임금에 대한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고, '여름'에 '님의 옷'을 지어내는 행동은 작가의 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작가가 임금의 선정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고, '가을'에 '청광'을 '봉황누'에 부치려는 행동은 임금의 선정에 대한 작가의 갈망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작가가 임금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고, '양츈'을 '님 겨신 **ᄃᆡ**' 보내고자 하는 행동은 추운 겨울 임금의 안위에 대한 염려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사미인곡」에 나타난 화자의 행위와 작가의 정서

「사미인곡」은 작가가 당파 싸움에서 탄핵되어 고향인 창평에 내려가 있을 때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임을 생각하는 여인의 마음과 견주어 지은 작품이다. 〈보기〉 글은 「사미인곡」에서 계절마다 달리 나타나는 화자의 행동이 임금에 대한 작가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작품의 종합적 이해**

[A]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임이 말한 내용에 대해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B]에서 화자는 범나비가 되어 임에게 날아간 자신을 임이 알아보지 못하여도 임을 좇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 임의 행동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A]에는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에서 임과의 인연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 [B]에는 '범나븨'가 되어 임에게 날아가겠다는 구절에서 현재 처지에 대한 극복 의식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는 '광한뎐'과 '하계'를 통해, [B]에서는 화자가 '범나븨'가 되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는 '엇그제 님을 뫼셔 ~ 헛틀언디 삼 년일쇠'에서 과거와의 비교를 통한 현재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B]에는 현재의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인해 미래에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A]의 첫 부분에 나타난 '임을 좇는' 행위를 [B]의 끝부분에 다시 반복함으로써 임과 다시 만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보기〉에서는 「사미인곡」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동산의 **ᄃᆞᆯ**'과 '북극의 별'은 임을 상징하는 소재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임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두 대상들이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서 소재가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에서 임을 위해 지은 옷을 보내려고 하지만 산과 구름이 험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소재를 통해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상징할 수 있다고 했고, '쳔리 만리 길희 뉘라셔 추자갈고'에서 '천리 만리 길'은 떨어져 있는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과장하여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소재를 통해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할 수 있다고 했고, '쑴'의나 님을 보려 톡 밧고 비겨시니'는 '쑴'에서라도 임을 보려는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소재를 통해 화자의 현재 처지를 부각할 수 있다고 했고, '편쟉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엇디ᄒᆞ리'에서 '병'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사미인곡」에 나타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시가에 사용된 소재는 단순한 자연물이나 사물로 활용되기보다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기〉 글은 「사미인곡」 역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 화자의 처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55~57쪽

14 규원가

핵심 포인트 ❶ 독수공방 ❷ 원망

1. ③ 2. ① 3. ④ 4. ④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규방 가사이다. 봉건적 윤리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요되던 조선 시대,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여인의 괴로움과 한스러움이 잘 드러난다.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고도 애절하게 표출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된다. 시적 화자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임에 대한 원망도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비애감이 응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주제**: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부녀자의 원망과 한
- **표현상의 특징**
  ① 한문 어구와 고사성어를 활용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대조법, 대구법, 감정 이입 등의 표현 방식을 활용함.
- **구성**

기	과거 회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
승	남편에 대한 원망과 서글픈 심정
전	거문고를 타며 외로움과 한을 달램.
결	임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

1. | 표현상 특징 파악 |

화자는 '공후 배필', '군자 호구', '월하의 연분', '백 년 기약' 등을 통해 대상과의 인연이 부부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첫 부분의 시어나 구절을 끝부분에서 반복한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유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옥창에 심ᄀᆞᆫ 매화 몃 번이나 픠여 진고'는 '매화'가 여러 해 피고 지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규방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려 온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을 강조한 구절이므로, 기다림을 버텨 내는 화자의 인내심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② '가을 ᄃᆞᆯ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울 제'에서 침상에서 울고 있는 자연물인 '실솔'은 화자의 서글픈 마음이 이입된 감정 이입의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③ '소상 야우의 댓소리 섯도ᄂᆞᆫ ᄃᆞᆺ'에서 소상 야우에 섞어 도는 듯한 대나무 소리는,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소상강가에서 흘린 눈물에 대나무에 반점이 생겼다는 고사를 활용한 것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초로ᄂᆞᆫ 맷쳐 잇고 모운이 디나갈 제'에서 '초로'와 '모운'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경으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죽림 푸른 고ᄃᆡ 새소리 더욱 설다'에서 서러운 '새소리'는 실제 새의 감정이 담긴 것이 아니라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가 새소리를 서글프게 느끼는 것으로 감정을 이입하여 외로운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자연물을 통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 표현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정서나 화자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며, 자연물에 감정을 직접 이입하는 경우와 객관적 상관물을 동원해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B]에는 '출하리 잠을 드러 쑴의나 보려 ᄒᆞ'는 화자를 통해 외로운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보이지만, [A]에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A]의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 원ᄒᆞ더니'에서 화

자의 과거 소망을, [B]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ᄭᅳᆺ쳔는고'에서 임의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음을 통해 화자의 신세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는 '월하의 연분ᄋᆞ로'의 '월하'를 통해 운명에 대한 원망을, [B]에서는 설화 속 인물인 '견우와 직녀'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③ [A]의 '조물이 다시ᄒᆞ야'로 볼 때 [A]에서는 화자가 늙은 원인을 조물주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B]의 '약수 가렷관듸'로 볼 때 [B]에서는 임의 소식이 끊어진 원인을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약수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둘 다 현재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A]는 과거의 젊은 모습과 현재의 늙은 모습을, [B]는 '견우와 직녀'의 상황과 '임과 화자의 상황'을 대조하여 화자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인연을 긋쳐신들 ᄉᆡᆼ각이야 업슬소냐'에서는 임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임을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면모가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참고 있는 전통적 여성상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임과 인연이 시작될 때 마음 쓰기를 조심했다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부장적 유교 질서에 따르는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남을 탓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책망하는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화려하게 꾸미고 집을 나가 기생집만 들락이며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는 데서 주체적 여성상을 엿볼 수 있다.

⑤ 임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며 임을 적극적으로 원망하는 모습은 독수공방으로 인한 아픔의 책임을 남편에게서 찾는 주체적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 분석

「규원가」에 나타난 여성 화자의 주체적 면모

화자는 가부장적 유교 질서가 지배적인 조선 시대의 여성으로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 주체로서 행동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58~60쪽

15 선상탄

핵심 포인트 ❶ 우국충정 ❷ 태평천하

1. ① **2.** ⑤ **3.** ③ **4.**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통주사가 되어 부산으로 내려와 수군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왜적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태평천하에 대한 기원을 노래한 가사이다. 「태평사」와 더불어 전쟁 가사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설분신원할 것을 다짐하며 기개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판옥선을 탄 현재의 상황과 연관 지어 헌원씨와 진시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하고, 풍류를 즐기던 배를 떠올리며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등 전란에 대한 관념과 감정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 **주제:** 우국충정과 태평천하에 대한 기원
- **표현상의 특징**
  ① 한자와 고사성어를 활용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대조, 대구, 은유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함.
- **구성**

서사	주사 임명과 병선에서의 적진 응시
본사 1	헌원씨, 진시황, 서불을 원망함.
본사 2	자연을 즐기는 수단으로서의 배의 가치 생각
본사 3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배가 전쟁의 수단으로 쓰임.
본사 4	임진왜란의 치욕과 우국 단심
본사 5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와 의지
결사	평화 공존의 의지와 태평천하에 대한 기원

[현대어 풀이]

늙고 병든 몸을 수군 통주사로 보내시므로,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변방의 중요한 요새 지대에서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굳이 올라가서,
기운을 내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은 멀고 가까운 곳에 쌓여 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빛이로구나.
배 위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옛날과 오늘날을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배를 처음 만든) 헌원씨를 원망하노라.
큰 바다가 넓고 아득하여 천지에 둘러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가 거센 바다 만 리 밖에서 어느 오랑캐가 엿볼 것인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고?
오랜 세월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온 천하에 만백성의 원한을 기르고 있다.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왜족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오겠는가? 〈중략〉
아,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가 너무 심하다.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주를 한 것인가?
신선을 못 보았거든 빨리나 돌아왔으면,
통주사의 이 시름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두어라. 이미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 것이라 말해야 무엇 하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시비를 팽개쳐 던져 두자.
깊이 생각하여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황제(헌원씨)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그릇된 줄을 모르겠도다.
장한이 강동으로 돌아가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작은 배를 타지 않으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해도
어느 흥이 저절로 나겠으며, 삼공과도 바꾸지 않을

경치가 좋은 강산에서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활을
한 조각의 작은 배가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여 다니겠는가?
이런 일을 보면 배를 만든 제도가
지극히 묘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나는 듯이 빠른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바람과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놀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이오?
옛날의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럽더니,
오늘날의 배 안에는 큰 칼과 긴 창뿐이로다.
똑같은 배건마는 가진 바가 다르니,
그 사이의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시국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리는구나.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떨어지랴마는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의 흉악한 꾀에 빠져 오랜 세월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있어,
(그 수치의) 백분의 일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신하와 임금의 신분이 서로 달라 못 모시고 늙은들,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런 마음이야 어느 때인들 잊겠는고?
(왜적의 침입을)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씩씩한 기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지만,
보잘것없는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함을 씻고 원한을 풀어 버리기가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 있는 사마의를 멀리 쫓았고,
발이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는데,
하물며 이 몸은 손과 발이 갖추어 있고 목숨이 살아 있으니,
쥐나 개와 같은 도적을 조금이나마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듯이 빠르게 가는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휘몰아치면,
구시월에 부는 서릿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왜적을)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할 것인가?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캐들아, 빨리 항복하려무나.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는 법이니 너희들을 구태여 모두 죽이랴?
우리 임금님의 성스러운 덕이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시느니라.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시대와 같은 임금과 백성이 되어 있어,
해와 달의 빛 같은 임금님의 성덕이 매일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기잡이배에서 저녁 늦게까지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군 치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1.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헌원씨', '진시황과 서불', '장한'의 고사 등을 인용하여 왜적에 대한 강한 분노와 전쟁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구절 이해 |**

'추월 춘풍에 놉히 베고 누어 이셔'는 가을 달 봄바람에 베개를 높이 베고 눕는 것으로 태평성대에 화자가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므로 ㉤ '어주'는 전쟁이 끝난 후 평화로운 태평성대에 자연을 즐기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오답 분석

① '병선'에 화자가 '일장검 비기 ᄎᆞ고' 올라온 모습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는 군인의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선상'에서 화자가 '배회ᄒᆞ며 고금을 사억ᄒᆞ고' 있는 모습은 전쟁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판옥선'에서 화자는 '임풍 영월호ᄃᆡ 흥이 젼혀 업ᄂᆞᆫ 게오'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흥을 느낄 수 없는 전쟁 상황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비선'에서 왜적을 '구시월 상풍에 낙엽가치 헤치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적을 물리치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보기 분석

「선상탄」에 등장하는 '배'의 공간적 기능

이 작품에서 '배'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과거의 배와 현재의 배에 대한 인식이 다른 화자에게 있어 '병선', '선상', '판옥선', '비선', '어주' 등과 관련된 구절은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 구절의 의미 파악 |**

전쟁이 발생한 원인을 책망하며 느낀 감정을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두어라' 앞에서는 왜적이 생기게 한 진시황과 서불을 원망하고, '두어라' 뒤에서는 '기왕불구라 일너 무엇 ᄒᆞ로소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과거 상황에 대해 책망하던 화자의 단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두어라'를 통해 현재 발생한 일에 대한 화자의 자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두어라'를 통해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기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두어라'를 통해 화자가 과거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어라'를 통해 화자가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준피 도이들아 수이 걸항ᄒᆞ야ᄉᆞ라'은 왜적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왜적을 '오랑캐'로 표현하여 비하하는 표현은 있지만, 이어지는 '항자 불살이니 너를 구ᄐᆡ 섬멸ᄒᆞ랴'로 볼 때 화자는 왜적이 항복을 하면 평화롭게 함께 살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군인으로서의 분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관방중지예 병이 깁다 안자실랴'에서 '병이 깊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사대부가 은거할 때 자신의 처지를 일컫는 표

현이다. 은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거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므로 전쟁터에 나오는 주사로서의 우국충정을 엿볼 수 있다.

② '황운은 원근에 사혀 잇고'에서 '황운'은 전쟁의 기운을 드러내는 관습적 표현이다. 멀리 황운이 쌓여 있다고 했으므로 전쟁 기운이 남아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주사로서의 염려를 엿볼 수 있다.

③ '북신을 ᄇᆞ라보며 / 상시 노루ᄅᆞᆯ 천일방의 디이ᄂᆞ다'에서 '북신'은 북극성으로 임금을 지칭하는 관습적 표현이다. 임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걱정하는 신하로서의 충정을 엿볼 수 있다.

④ '오동방 문물이 한당송애 디랴마ᄂᆞᆫ'에서 중국의 한, 당, 송의 문물에 지겠느냐는 설의적 의문은 뒤지지 않는다는 표현이므로 조선 문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신하로서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61~63쪽

16 만언사

핵심 포인트 ❶ 유배 생활 ❷ 한탄

1. ① 2. ③ 3. ⑤ 4. ④ 5.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김진형의 「북천가」, 조위의 「만분가」 등과 함께 유배 가사로 분류되는 장편 가사이다.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이던 작가가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에 추자도로 귀양을 가서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에는 죄를 지어 추자도로 유배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경험한 비참한 삶, 이로부터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후회,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주제**: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죄에 대한 반성
- **표현상의 특징**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비참한 상황을 부각함.
  ② 유배지에서 겪은 고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구성**

서사	귀양 가는 신세 한탄
본사 1	자신의 과거 회상
본사 2	유배를 오는 여정
본사 3	유배 생활의 괴로움
결사	유배지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풀려나기를 기원함.

1. | 표현상 특징 파악 |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에서 '백운'과 '청운'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는 화자가 '공명'을 탐하던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표현이다.

오답 분석

② '남방염천'에서 남쪽 지방의 뜨거운 하늘을 통해 여름을, '전산 후산(前山後山)'에 누렇게 보리가 익어 가는 풍경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옥식진찬 어데 가고~현순백결 하였는고' 등에서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문득 계절의 변화를 깨달은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⑤ '굴뚝 막은 덕석인가', '몇 그릇 먹었느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궁핍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2. |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 |

화자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부의 삶을 부러워하며 농사일을 예찬하고 있지만, 농부가 하는 농사일을 직접 돕고 있지는 않다.

오답 분석

① '손 잡고 반기는 집', '옥식진찬', '금의화복' 등을 통해 과거에 누렸던 호화로운 삶을 떠올리며 현재 구차하게 구걸하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② 화자는 유배지에서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달리 풍년을 맞이하여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농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화자 자신의 모습을 '귀신', '미친 사람'에 빗대어 초라한 행색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구름(백운, 청운)', '벌과 나비' 등에 빗대어 부귀공명을 추구하던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3. | 화자의 정서 비교 |

[A]에서 화자는 과거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현재에는 궁핍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으므로 지난날의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해도 기울고 달도 이지러지듯이 부귀공명도 결국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A]와 주제 의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국화가 지닌 특성을 통해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②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③ 잘 익은 감을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노래하고 있다.

④ 봄날의 깊은 밤, 하얀 달빛 아래 배꽃이 피어 있는 곳에서 잠 못 드는 화자의 고독과 애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4. |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에서 화자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정신적 풍요를 누리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농부를 매우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농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은 유배될 당시의 겨울 의복을 아직도 입고 있는 화자의 비참하고 궁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과거의 '반기는 집'과 현재의 '내치는 집'을 대비하여 현재 화자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③ ㉢에는 신세 한탄에 초점을 두어 화자 자신을 향하던 화자의 시선이 황금빛으로 변한 들판으로 향하여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 ㉤은 앞 뒤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줄 알았으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의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5.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탐화봉접'은 '그물'에 걸린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로 '공명'을 탐하여 그 죄로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화자를 유배지로 귀양을 보내는 권력자로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뜨거운 한여름에 입은 누비바지를 '굴뚝 막은 덕석'에, 자신의 모습을 '귀신'에 비유함으로써 유배지에서 겪고 있는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주색에 빠져 국고금을 축낸 죄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귀한 음식과 옷을 의미하는 '옥식진찬'과 '금의화복'은 과거 호화로운 화자의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 '한숨'과 '눈물'이 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함포고복'과 '격양가'는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모습으로 조선 전기의 가사였다면 임금의 선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유배 가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으므로 유교적 이념보다는 화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부각하는 소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64~65쪽

17 시집살이 노래

핵심 포인트 ❶ 시집살이 ❷ 체념

1. ② **2.** ⑤ **3.** ③

- **작품 해설**: 이 노래는 여성들이 부르던 부요(婦謠)로, 고된 시집살이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사촌 동생이 친정을 방문한 사촌 형님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사촌 형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유희와 다양한 비유적 표현, 열거법, 대구법, 과장법, 대조법 등을 통해 시집살이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으며, 힘든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4음보, 4 · 4조의 율격으로 일정한 리듬감을 유지하고 있다.
- **주제**: 고된 시집살이의 한(恨)과 체념

- **표현상의 특징**
  ① 대화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③ 유사한 어구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함.
- **구성**

기(1~3행)	근친 오는 형님을 마주함. → 사촌 동생의 물음
서(4~23행)	고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 → 형님의 대답 ①
결(24~26행)	시집살이에 대한 해학적인 체념 → 형님의 대답 ②

1. **| 표현상 특징 파악 |**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에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처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ㄱ). 또한 과거의 모습을 빗댄 '배꽃', '삼단', '백옥'과 현재의 모습을 빗댄 '호박꽃', '비사리춤', '오리발'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부각하고 있다(ㄹ).

오답 분석

ㄴ. 이 작품에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ㄷ. 이 작품은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ㅁ. 이 작품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2. **|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은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로 눈물로 베개에 연못이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시집살이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슬픔을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살이'라는 동일한 발음을 통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고추, 당추'와 '시집살이'의 매움을 비교하고 있다.
③ '아홉 솥', '열두 방'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 시어를 활용하여 많은 솥에 불을 때고 방방마다 이부자리를 걷어야 하는 고단한 시집살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삼단'은 탐스러운 머리를, '비사리춤'은 거친 머리를 의미한다.

3. **| 작품 간 비교 감상 |**

[A]는 시집 식구들에 대한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고, [B]는 시집 식구들의 특성을 감정의 의탁이나 비유 없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A]와 [B] 모두 예시나 유추의 방법이 아닌 열거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② [A]는 화자가 겪는 시집살이의 애환에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B]는 함부로 시집 흉을 보며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드러난다.
④ [A]와 [B] 모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⑤ [A]는 시집살이 여인의 말을 고백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B]는 부인의 말을 화자가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Ⅱ 고전 산문

68~70쪽

01 조신의 꿈

핵심 포인트 ❶ 신라 ❷ 꿈속 ❸ 내적

1. ⑤ **2.** ② **3.** ⑤ **4.** 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구운몽」의 창작 모티프로도 유명한 설화로,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실에서의 욕망이 좌절된 조신은 꿈속에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만 궁극적으로 그 욕망은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에 꿈에서 깨어난 조신이 인간의 애정과 같은 세속적 욕망이 헛됨을 깨닫는다는 불교적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
- **표현상의 특징**
  ①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
  ② '외화(현실) – 내화(꿈) – 외화(현실)'의 액자식 구조
- **구성**

발단	조신은 김 씨 여인과의 인연을 바라지만 좌절됨.
전개	좌절감에 부처님을 원망하다가 꿈을 꾸게 됨.
위기	꿈속에서 김 씨 여인을 만나지만 가난 때문에 고난을 겪음.
절정	15살 된 아이를 잃고 김 씨 여인과 이별하려는 순간 꿈에서 깸.
결말	세속적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적 가르침을 수용함.

1. | 작품의 내용 이해 |

꿈속에서 김 씨 여인이 조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조신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이 둘씩 데리고 서로 작별한다.

오답 분석

① 꿈속에서 조신 부부는 가난 때문에 '십오 세 되는 큰아이'가 굶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
② 꿈속에서 김 씨 여인은 조신을 직접 찾아와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③ 꿈에서 깬 조신은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의 사재를 내서 절을 세우고 착한 일을 하며 생을 마쳤다.
④ 꿈을 꾸기 전에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좋아해 여러 번 김 씨 여인과의 인연이 맺어지길 관음보살에게 빌었다.

2. | 작품의 구조 이해 |

ⓐ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갈등이 ⓑ로 인해 ⓒ에서 내적 갈등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에서의 내적 갈등이 ⓑ를 통해 ⓒ에서 해결되는 양상을 띤다.

오답 분석

① ⓑ에서 조신이 김 씨와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는 사건은 ⓐ에서 조신이 김 씨 여인과의 인연에 대한 욕망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조신은 ⓑ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에서 ⓐ의 일을 후회하게 된다.
④ '해현'은 꿈에서 아이를 묻은 공간으로 이곳에서 나온 '돌미륵'은 ⓑ와 ⓒ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⑤ 조신은 ⓑ로 들어가면서 김 씨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고, 김 씨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에서 깨어 나오게 된다.

3. | 서술상 특징 파악 |

[A]에서는 가난에서 비롯된 유사한 사건들을 나열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구성을 갖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제시된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특별한 해석과 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여러 인물들의 행동을 통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인물의 외양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 인물의 심리 파악 |

김 씨 여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다는 헛된 욕심에 휩싸여 꿈속에서 오랜 세월 가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부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특별히 잡지 못해 후회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의 경솔한 행동이나 자신의 신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조신이 남들의 비난을 받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71~73쪽

02 국선생전

핵심 포인트 ❶ 곡 씨 ❷ 신하 ❸ 시련

1. ② **2.** ④ **3.** ④ **4.** ④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술(누룩)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가전체 소설로, 국성의 성품과 충절을 강조하여 위국충절의 사회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술을 의인화한 국성을 위국충절의 대표적 인물로 등장시켜 선비의 삶이란 신하로서 군왕을 모시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한다는 데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국성은 성품이 어질고 덕과 충성이 지극한 인물로 일시적인 시련을 견디어 내어 더욱 성숙해지는 긍정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
• **주제**: 신하로서의 올바른 처신에 대한 경계
• **표현상의 특징**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 형식으로 서술함.
② '도입 – 전개 – 비평'의 구성 방식을 취함.
• **구성**

도입	국성의 가계와 신분
전개	국성의 인품과 행적
	국성의 세 아들과 친구의 죽음 및 국성의 폐서인
	국성의 도적 토벌, 귀향과 죽음
비평	국성의 생애에 대한 사관의 평가

1. | 서술상 특징 파악 |

어른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던 국성의 어린 시절, 국성이 벼슬을 그만둔 후 제와 격에 도둑이 일어난 일, 임금이 여러 차례 국성에게 벼슬을 청한 일 등 국성과 관련된 다양한 예화를 나열하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서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⑤ 다양한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한 인물의 성격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2. | 작품의 내용 이해 |

사신은 국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여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고 보았다.

오답 분석

① 국성의 증조는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국성의 집안은 그의 아버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간 집안으로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다.
③ 임금은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국성의 뜻을 여러 번 승낙하지 않았지만 끝내 이를 허락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⑤ 국성은 부하 군사를 엄하게 통솔해 한 번 싸움에 제와 격 마을에서 일어난 도둑들을 토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을 회유하여 백성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3. | 작품의 구절 이해 |

'도화즙', '신선'과 같이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국성 일가가 이상 세계의 인물들과 교류를 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국성의 아우인 현의 아들들이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운 것을 말했을 뿐이다.

오답 분석

① ㉠은 국성의 도량이 '만경의 물결'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국성의 마음이 너그럽고 깊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② ㉡은 부하 군사를 엄하게 통솔하면서도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국성의 탁월함을 드러낸다.
③ ㉢은 자신의 퇴임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강조한 국성의 발화로, 국성이 퇴임의 뜻을 밝히기 위해 한 발화이다.
⑤ ㉤은 사신이 『주역』의 말씀을 인용해 한 말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고 실천한 국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 발화이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국성은 벼슬을 멀리하였으나, 그의 아우는 '벼슬이 이천 석'에 올랐음을 볼 때, 주인공 일가가 가문 대대로 벼슬을 멀리하고 은둔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분석

① 국성의 먼 조상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A]는 주인공 가문의 주요 인물과 내력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주인공의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② [B]는 국성의 어렸을 적 행적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으로, '손님'의 평가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훌륭했던 주인공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③ [C]는 국성이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적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국성이 벼슬을 하면서 남긴 업적과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⑤ [E]는 '사신'이 논평하는 형식을 활용해, 주인공의 성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성에 대한 임금의 과한 사랑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여 경계해야 할 인간 세태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74~76쪽

03 남염부주지

핵심 포인트 ❶ 세조 ❷ 작가(김시습) ❸ 꿈속 ❹ 대화

1. ② **2.** ② **3.** ① **4.** 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 중 하나로, 작가의 사상이 가장 직접적이고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박생과 염왕 사이의 대화를 통해 작가가 가진 유학자로서 선비가 지녀야 할 자세와 왕도 정치의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유학자로서 선비가 지녀야 할 자세와 왕도 정치의 이상
• **표현상의 특징**
①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
② 박생과 염왕의 대화로 구성됨.

• 구성

발단	박생이 과거 급제에 실패하고 책을 읽다 잠이 듦.
전개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라는 별세계에 이름.
위기	염왕과 사상적 담론을 벌임.
절정	염왕은 박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고 박생은 꿈에서 깨게 됨.
결말	가사를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함.

1. | 작품의 내용 이해 |

박생이 이웃집 사람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앞날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이웃집 사람의 꿈에 나타나 박생의 앞날을 예고한 것이다.

오답 분석

① 박생은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③ 염왕은 잔치가 끝나고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손수 글을 지어' 박생에게 내렸다.

④ 염왕은 '백성들이 임금의 정사에 대해 원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해서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염부주의 땅'은 '풍토병이 생기는 곳'으로 '우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며 '목왕의 준마도 오지 못'할 정도로 험준한 곳이다.

2. | 대화의 특성 이해 |

박생과 염왕은 '삼한이 흥하고 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염왕의 '그대의 말씀이 지당하오.'라는 발화를 통해 서로의 정치관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에서 박생과 염왕 사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절충하며 극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장면 또한 확인할 수 없다.

③ 박생과 염왕 사이의 대화에서 명분과 실리에 관련한 논쟁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박생과 염왕은 유사한 정치관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있을 뿐,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⑤ 박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염왕이 지적하여 박생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3. | 소재의 기능 파악 |

주인공은 현실에서 미처 펼치지 못한 정치적 이상을 꿈속에서 염라왕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낸다. 따라서 ⓐ는 주인공이 펼치고 싶은 정치적 이상을 드러내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꿈속에서 주인공이 염왕의 왕위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는 것을 고려할 때, ⓐ를 탈속의 세계로 가는 통로로 볼 수는 없다.

③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 갑자기 병이 들었으나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저승에서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를 통해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업보를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꿈을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주인공이 정치적 이상을 아직 실현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를 통해 일시에 해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주인공의 욕망은 과거에 급제하여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는 것이다. 현실 세계와 꿈속에서 가졌던 주인공의 욕망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를 현실 세계의 욕망과 이상 세계의 욕망을 이어 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는 없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은 '큰물과 가뭄이 닥치는' 이유를 임금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이해하는 염라왕의 생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그릇된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여 천명과 맞서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분석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박생'은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에서 '덕이 없는 사람'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빗대어 지칭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보기〉를 참고할 때, ㉢의 '간신'은 정창손을 비롯한 세조의 주변 세력을 빗대어 지칭한 것으로, '큰 어지러움'은 단종 폐위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세조와 그의 주변 세력들이 득세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서술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는 생육신 중 한 명으로 현실 정치에 좌절하여 은둔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생'이 작가의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인물이라고 할 때, ㉣은 작가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는 왕도 정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지만 정치 현실에 좌절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박생'이 염라왕의 왕위 제안을 승낙하는 것은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77~80쪽

04 조웅전

핵심 포인트 ❶ 중국 송나라 ❷ 이두병 ❸ 위왕

1. ③ 2. ⑤ 3. ② 4. ③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국문으로 쓰인 영웅 군담 소설로, 주인공의 고행담을 다룬 전반부와 주인공의 결연담을 다룬 중반부, 주인공의 무용담을 다룬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도술적 힘에 의한 조웅의 영웅적 활약상과 함께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작품의 전면에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 **주제**: 진충보국(충성을 다하여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과 자유연애

• **표현상의 특징**

① 영웅적 무용담과 결연담을 결합해 구성함.

② 한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상황이나 의중을 드러냄.

③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함.

• **구성**

발단	아버지와 어머니을 여의고 고난을 겪음.
전개	도사들을 만나 무술을 익힘.
위기	서번을 격파하고 태자를 구출함.
절정	이두병 일파를 격파함.
결말	조웅이 서번의 왕이 됨.

1. | 작품의 내용 이해 |

'이 간악한 놈아, 너를 잠신들 어찌 살려 두겠느냐만 아직 살려 두는 뜻은 태자를 모셔 온 후에 죽이려 함이라.'로 보아, 조웅은 태자를 모셔 온 후에 이두병을 처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만조백관은 두병 부자를 결박하여 바치면서 오히려 조웅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② 삼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한 조언은 강백이 조웅에게 한 것이 아니라 조웅이 강백에게 한 것이다.

④ '이관 등 오 형제를 나입하여 약간 수죄하고 무사로 하여금 이두병과 그 아들 오 형제를 다 수레 위에 올려 앉히고'로 보아, 조웅이 깍듯하게 예를 갖추어 오 형제를 다루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조웅은 황자강에 이르러, 강산 풍경이 예와 같다는 느낌을 받고 슬픈 생각에 잠긴다. 따라서 조웅은 황자강에 처음 와 본 것이 아니다.

2. | 인물의 의도 파악 |

[A]에서 조웅은 이전 전투에서 '일대'와 '이대'의 머리를 베어 왔음을 밝혀 '삼대'의 기세를 꺾으려 하고 있다. [B]에서 이두병은 조웅에게 잡혀 오자 자신이 한 일들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다른 이들의 소견에 따라 행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씌워 곤경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A]와 [B] 모두 전쟁에 희생된 이들의 원혼을 달래 주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② [B]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에서 한 발화이다.

③ [A]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승기를 잡으려는 발화로 볼 수 있겠으나, [B]를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환심을 얻고자 하는 발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A]는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B]를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조웅'이 '이두병'을 개인적인 원수로 생각하는 이유는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려 죽이려 해서가 아니라 조웅의 아버지인 '조정인'을 모함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기 때문이다. '태자'를 귀양살이 보내고 사약을 내려 죽이려 한 행위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분석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조웅의 사적인 원수이면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인물인 '이두병'이 '조웅' 앞에 꿇어앉아 심문을 당하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쾌감을 선사했을 수 있다.

③ 〈보기〉를 참고할 때, '강장'과 '조웅'이 강력한 적수인 '삼대'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전투 장면은 서사적 긴장감과 흥미를 더해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할 때, '삼대'의 약점을 간파하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상대를 제압하는 '조웅'의 모습은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백성들이 '조웅'의 활약을 높이 치하한 것은 '이두병'이 백성들의 환심을 얻지 못하고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힌 인물임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보기 분석

「조웅전」에 나타난 군담 모티프

영웅 소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군담 모티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글이다. 군담 모티프에서는 적이 강하고 전투 장면이 치열할수록 긴장감과 흥미가 높아지며, 주인공의 사적인 원수이면서도 공공의 적일 경우 제압되는 장면에서 독자에게 큰 쾌감을 준다.

4. | 구절의 기능 및 의미 파악 |

㉣은 삼대의 자존심을 자극하기 위해 꾸며 낸 것으로 강백이 꿈에서 들었던 소리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승전고' 소리는 조웅이 이끄는 군대가 앞선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청각적으로 알려 주는 소재이다.

② 왼손으로만 칼을 날리는 삼대의 모습을 통해 '우편'은 삼대의 취약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튿날 전투에서 조웅과 강백이 승리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④ 앞선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바삐 가서 오랜 원한을 갚고자 하는 조웅의 조급한 심정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던 이두병이 하루아침에 일개 무사에게도 심문당하는 존재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05 장화홍련전

핵심 포인트 ❶ 계모 ❷ 강 씨 ❸ 어머니 ❹ 배 좌수

1. ③ **2.** ⑤ **3.** ② **4.** ⑤ **5.**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계모의 전처소생 학대의 비리와 그에 따른 결과를 소상하게 보여 줌과 동시에 후세 사람들에 대한 권계(勸戒)를 시도한 계모형 가정 소설의 대표작이다. 선과 악의 대립 구도 속에서 장화와 홍련의 선함이 승리하고 계모 허 씨의 악함이 패배하는 결과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과 권선징악
- **표현상의 특징**
  ① 인물 간의 대화와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② 순행적 구성, 서술자의 개입 등 고전 소설의 전형적 서술 방식이 드러남.
- **구성**

발단	어머니의 죽음과 계모의 박해
전개	계모의 계략과 장화의 죽음 및 홍련의 자결
위기	철원 사또의 연이은 죽음
절정	신임 사또에 의해 원혼을 풀게 된 장화와 홍련(계모에 대한 응징)
결말	새로 부인을 맞아 쌍둥이 자매를 낳은 배 좌수

1. | 작품의 종합적 이해 |

이 글에서 계모 허 씨는 시기하는 마음에 장화와 홍련을 모해할 꾀를 생각하여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이로 인해 작품에 긴장감이 생기면서 서사적인 흥미를 유발한다.

오답 분석

①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나타나지만, 수록 장면은 허 씨의 계략에 좌수가 속아 넘어가는 장면으로 교훈적인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② 이 글에서 좌수와 장화 자매가 강 씨를 그리워하는 장면은 나타나지만, 죽은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회상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악인인 허 씨의 횡포를 징벌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에서 대립하는 인물들 사이의 지략 대결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좌수가 허 씨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 표현상 특징 및 효과 파악 |

㉡에서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허 씨가 자신의 잘못을 쉽게 뉘우치지 않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변덕이 심한 인물의 성격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철석 같은 심장이라도 녹아내릴 듯하더라.'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모친상을 당한 장화와 홍련의 정서에 공감한 서술자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느덧 삼상을 마치'었다는 서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켜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주고 있다.
③ 허 씨의 못난 외모를 '주둥이는 썰면 열 사발은 되겠고 얼굴은 콩멍석같이 얽었으니'와 같이 희극적으로 표현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④ 허 씨의 시기하는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허 씨의 모략에 의해 이어질 사건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3.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좌수 부녀의 대화를 허 씨가 창틈으로 엿듣고 분노하게 된 이유는 좌수 부녀가 전처인 강 씨를 그리워하고 허 씨 자신은 가정 내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에 대한 시기 때문이다. 이들 대화에서 허 씨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좌수는 허 씨의 흉계를 모르고 오히려 허 씨의 '진정한 덕을 내 이미 안'다고 하면서 허 씨의 계략에 협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좌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심화하는 무능력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좌수는 '항상 두 딸과 더불어 강 부인을 생각하며' '나갔다가 들어오면 먼저 두 딸의 방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전처소생을 먼저 찾았다. 이를 통해 허 씨의 가정 내 위상이 전처인 강 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좌수는 강 씨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생각'하여 '두루 혼처를 구하'였으나 '원하는 여인이 없'어 부득이 허 씨를 얻었다. 좌수에게 자식이라고는 두 딸 밖에 없었음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계모를 영입한 배경에 아들 중심의 혈통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허 씨는 자신을 가정 내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는 좌수와 두 자매에게 시기심을 느낀다. 이에 허 씨는 장화와 홍련을 모해할 꾀를 내었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 분석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화소

계모형 가정 소설에 나타나는 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글이다. 계모는 아들을 낳지만,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전처소생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가장은 무능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4. | 인물의 의도 파악 |

[A]에서 허 씨는 '거짓 자결하는 체'를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말을 빌미로 좌수의 신임을 얻어 장화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A]에서 장화를 죽였을 때 자신이 겪게 될 상황에 대한 언

급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에서 허 씨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A]에 이에 대한 언급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③ [A]의 이전 장면에서 허 씨가 현재 일어난 사건이 집밖으로 알려질 경우 미치게 될 파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은 있으나, 현재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에 대한 언급을 [A]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④ [A]에서 허 씨가 자신의 관대함을 은근히 드러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5. | 작품 형상화의 적절성 평가 |

이 글에서 허 씨가 장쇠에게 큰 쥐를 잡아오게 한 것은 자신에 대한 좌수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화가 낙태를 한 것처럼 꾸며 장화를 집 밖으로 내쫓아 죽이기 위한 계략의 일부였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에서 장화와 홍련이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강 씨가 병세가 악화되어 죽기 직전에 장화 자매와 좌수를 불러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와 딸들의 방에 들어가 허 씨에게 구박을 받은 두 딸을 위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허 씨가 좌수와 장화 자매 사이의 대화를 창문 틈으로 엿듣고 분노하여 모략을 계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85~88쪽

06 호질

핵심 포인트 ❶ 양반 ❷ 북곽 선생 ❸ 범

1. ② **2.** ② **3.** ② **4.** ④ **5.**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학자와 열녀로 이름이 있는 이들의 이중적 행동과 의인화된 인물인 범의 직설적 꾸짖음을 통하여 당시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 관념과 허위의식,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풍자한 작품이다.
- **주제**: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
- **표현상의 특징**
  ①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②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③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을 비판함.

- **구성**

발단	범이 저녁거리를 의논하다 마을로 내려옴.
전개	북곽 선생이 과부 동리자의 집에 찾아와 밀회를 즐김.
위기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오해하여 방에 쳐들어옴.
절정	당황한 북곽 선생이 도망치다 범을 만나 꾸지람을 들음.
결말	아침이 되어 범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던 북곽 선생을 농부가 발견함.

1. | 서술상 특징 파악 |

당황하여 도망가는 북곽 선생의 모습을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똥이 가득 찬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묘사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에서 반어적 표현이나 상황의 반전에 대한 암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서 대비되는 두 인물의 행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서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에서 급작스러운 상황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 |

동리자는 바깥으로는 수절을 잘하는 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리자가 북곽 선생의 고매한 인격을 흠모해 수절을 지켜온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분석

① 동리자의 아들들의 대화에서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와 같은 발화를 통해 이들이 북곽 선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동리자의 아들들이 방에 갑자기 쳐들어가 당황한 북곽 선생이 도망치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북곽 선생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실제로는 범의 꾸짖음에 머리 조아려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린 것이지만, 농부 앞에서는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교묘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동리자의 아들들은 동리자의 방에 든 인물을 천 년 묵은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으로 믿고 있다.

3. | 소재의 기능 파악 |

[A]에서 언급된 '여우'가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할 때,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로 보아 높은 벼슬을 이용해 많은 돈을 모은 인물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를 이용해 높은 벼슬을 차지한 인물이라는 설명은 선후가 바뀐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눠 갖도록 하자.'를 통해 여우에 비유된 북곽 선생이 아들들에 의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를 통해 여우에 비유된 북곽 선생이 남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데 능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로 보아, 북곽 선생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선비 시늉을 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의 꾐을 받을 수 있다더라.'를 통해 북곽 선생이 남의 비위를 잘 맞춰 다른 사람을 꾀어내는 재주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 반응의 적절성 평가 |

범은 엄한 법과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를 통해 다스림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죄악을 지적한다. 반면 〈보기〉는 한비자의 사상으로 인간의 죄악은 엄한 법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범은 〈보기〉에 대해 어질지 못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들은 엄한 법과 형벌로도 바로잡기 어렵다고 반응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사랑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범의 생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인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범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③ 엄하게 가르쳐 자식들의 행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범의 생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범은 인간에게는 엄한 벌도 소용없다고 하였으므로, 지방 관청의 수령들부터 수양하여 법을 행함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범의 생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기 분석

「오두 편」에 나타난 한비자의 사상

〈보기〉는 한비자의 생각을 보여 주는 글로, 인간의 죄악은 엄한 법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의 사랑, 마을 사람의 품성, 선생의 지혜로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식의 행실을 공법으로 바꾸게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보기〉를 참고할 때 북곽 선생이 범의 꾸지람에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북곽 선생이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으로, 그의 유교적 허위의식을 한층 더 부각한다. 이것이 계급적 질서가 와해되는 당대의 상황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범이 북곽 선생을 꾸짖는 장면은, 범을 의인화하여 당대 지배층의 비도덕적 측면을 폭로하기 위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북곽 선생이 범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은, 계급적 질서와 양반들의 허위의식에 염증을 느낀 당대 독자들에게 쾌감을 선사하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겉으로는 수절을 잘하는 부인으로 알려진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모두 성이 다르다는 것은, 유교적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북곽 선생이 과부의 방에 들어서도 시를 읊는 모습은, 유교적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북곽 선생의 모습을 드러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89~92쪽

07 심청전

핵심 포인트 ❶ 공양미 삼백 석 ❷ 용왕

1. ④ **2.** ③ **3.** ③ **4.**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화되어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아버지의 개안(開眼)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제물로 팔려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을 통해 유교의 근본 사상인 '효(孝)'를 강조하고 있다.
- **주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과 인과응보
- **표현상의 특징**
  ① 유교적 덕목인 '효'를 강조함.
  ② 유 · 불 · 선 사상이 복합적으로 드러남.
- **구성**

발단	어머니를 잃은 심청은 눈먼 심 봉사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힘들게 지냄.
전개	심 봉사가 공양미 삼백 석을 사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화주승의 말에 시주를 약속하고, 심청은 인당수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냄.
위기	인당수에 이르러 몸을 던진 심청은 용왕에게 구출되어 어머니 곽 씨 부인과 재회하고, 이후 연꽃 속에 들어가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함.
절정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 심 봉사를 그리워하며 맹인 잔치를 벌임.
결말	이 소식을 듣고 상경한 심 봉사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심청과 재회한 뒤 눈을 뜨게 되고, 이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삶.

1. | 작품의 내용 이해 |

석가세존은 아직 정해진 기간이 남았으나, 8, 9년이면 '족히 죄를 기워 갚았을 것'이라 강조하며 옥황상제에게 심청을 용서해 줄 것을 청했다.

오답 분석

① 동해 용왕의 시녀들은 쌍쌍이 나와 황금 가마를 갖다 대고 심청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다.

② 옥황상제는 규성을 노군성보다 40년 늦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 부녀의 연을 맺도록 하였다.

③ 옥황상제는 남두성에게 명하여 복록을 점지하게 하고, 북두성으로 하여금 수명과 자손을 점지하게 하여 심청이 유리국 황후가 되어 평생 즐거움을 누리게 하였다.
⑤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심청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탄식하며 '천만고에 없던 저런 일을' 보게 되었다고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 | 한자 성어에의 적용 |

갖은 고생을 하다가 평생 즐거움을 누리게 될 심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의 '고진감래'가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오답 분석

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난 것을 이르는 말인 '구사일생'과는 거리가 멀다.
②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갑자기 는 것을 일컫는 말인 '괄목상대'와는 거리가 멀다.
④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이르는 말인 '각골통한'과는 거리가 멀다.
⑤ 목숨이 초를 다툴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인 '명재경각'과는 거리가 멀다.

3. | 작품 간 비교 감상의 적절성 평가 |

〈보기〉에서는 심청이 물에 뛰어든 뒤 물결이 잠잠해지고 날씨가 맑아진 상황 변화에 대한 도사공의 반응을 덧붙이고는 있으나, 이것이 심청이 초월적 능력을 지녔음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와 [A]에서 모두 심청의 초월적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서는 '심청이 거동 보소.'와 같은 판소리의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A]보다 판소리와의 관련성이 잘 드러난다.
② 〈보기〉에서는 '월러렁 콸넝'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심청이 뛰어들 바다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여, [A]에 비해 심청의 두려움이 더 잘 나타나 있다.
④ [A]와 〈보기〉에서는 모두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의 평안을 비는 심청의 모습을 묘사하여 인물의 효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⑤ [A]에서는 '슬프고 참혹했다', 〈보기〉에서는 '엎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등과 같이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물에 뛰어드는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현실 세계에서 지은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초현실 세계에서 지은 죄의 값을 인간 세상에서 치른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오답 분석

① '새양 머리한 선녀'는 조각배를 타고 심청을 구해 주고 '동해 용궁'으로 심청을 인도한다는 점에서, 심청이 현실 공간에서 초현실 공간으로 진입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심청이 초현실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생약'을 마시고 '황금 가마'를 타게 된 것은, 초현실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하게 된 새로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황금 글자가 새겨진 '현판'과 '옥난간', '상서로운 구름과 안개' 등은 모두 현실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에서 초현실 공간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심청이 용궁에서 용왕으로부터 규성과 노군성의 인연이 부녀간 인연으로 이어졌음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심청이 초현실 공간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93~95쪽

08 이춘풍전

핵심 포인트 ❶ 이춘풍 ❷ 평양 ❸ 남장

1. ④ **2.** ④ **3.** ④ **4.** 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재물을 탕진한 춘풍의 방탕한 모습과 남장을 하고 나타나 남편을 위기에서 구해 내는 아내의 현명한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상을 제시한 판소리계 소설이다.
- **주제**: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 여성상의 제시
- **표현상의 특징**
  ① 물질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던 시대상을 반영함.
  ② 두 인물의 상반된 생활 태도와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제시함.
- **구성**

발단	이춘풍은 방탕한 삶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춘풍 아내가 품팔이를 하여 가정을 재건함.
전개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돈 2,000냥을 빚내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몽땅 빼앗김.
위기	아내가 남장을 하여 평양에 올라가 회계 비장이 되어 추월을 징벌하고 돈 2,500냥을 되찾아 춘풍에게 줌.
절정	고향으로 돌아온 춘풍이 아내에게 허세를 부리자 춘풍의 아내가 비장 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을 꾸짖음.
결말	비장의 정체를 알게 된 춘풍은 부끄러워하며 개과천선함.

1. | 서술상의 특징 파악 |

순간적인 장면 전환이나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가 연결되는 장면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춘풍과 춘풍 아내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② '불쌍하다, 춘풍 아내 아무리 여러 말로 말리어도 막무가내일러라.'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③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작품 전반에 사용하여 산문체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⑤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직접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2. | 말하기 방식의 차이 파악 |

[B]는 춘풍 아내가 자신을 믿고 춘풍에게 평양 장사를 가지 말라고 춘풍을 만류하는 장면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분석

① [A]에서 춘풍 아내는 평양 물정이 사치스럽고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춘풍이 장사 가고자 하는 평양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② [A]에서 춘풍 아내는 평양에서 장사하기에는 춘풍의 역량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③ [B]에서 춘풍 아내는 자신을 믿고 평양에 가지 않으면 편안히 앉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춘풍을 회유하고 있다.
⑤ [A]에서 춘풍 아내는 과거에 춘풍이 실패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B]에서는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어 두었다는 점을 들어 춘풍이 마음을 돌리도록 회유하고 있다.

3. | 표현의 효과 파악 |

'연소문 얼른 지나서 무학재 얼른 지나 평양길 내려갈 제 청석골 다다르니'와 같이 평양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였고, '황성천도 벽사월에 창오원 중 늙은 고목, 주유낙일 절벽 간에 임을 그려 상사나무, 옥조중랑 축분춘아 이월중 난 계수나무, 층암절벽에 펑퍼진 반송나무' 등 여정 속에서 본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춘풍의 들뜬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C]는 춘풍이 장사하러 평양에 내려가는 여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초월적 공간에 대한 인물의 지향과는 거리가 멀다.
② '춘삼월 호시절' 등 변화된 계절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사건 전개에 따른 시간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열된 자연물에 인물의 들뜬 심리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긴 여정 속에서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다각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세속적 세계와의 대비를 통한 풍자로 보기는 어렵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춘풍이 평양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장사로 성공하여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남성들에게 이어져 온 가부장제의 허위의식을 지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분석

① 춘풍은 '가중범사를' 아내에게 맡기며 아내 마음대로 '제가' 하도록 권한을 넘기는데, 이는 가장으로서의 부양 능력을 상실한 춘풍의 무력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춘풍은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평양행을 만류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대로하여 어질고 착한 아내 머리채를' '감아쥐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데, 이는 당시 가부장제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춘풍은 '아내 덕에'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해졌지만, 다시 '마음이 교만'해져 이전의 방탕한 생활을 이어 간다. 이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할 때, 방탕하고 무능력한 춘풍과 달리 능란한 길쌈으로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일해 수천 금의 재산을 모은 아내의 모습은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능력에 따라 남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6~100쪽

09 우리 이야기 문학 속 변신 모티프 / 김원전

핵심 포인트 ❶ 외형 ❷ 욕망 ❸ 환상성 ❹ 천상계 ❺ 기한

1. ④ **2.** ② **3.** ② **4.** ④ **5.** ①

가 우리 이야기 문학 속 변신 모티프

- **해제**: 이 글은 우리 이야기 문학 속에 자주 등장하는 변신 모티프를 설명하는 글이다. 변신은 설화 문학의 단계에서부터 자주 등장하였는데, 고전 소설에 와서는 인간이 변신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변신의 양상은 외부 세계의 개입 없이 변신 주체의 변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외부 세계의 도움으로 변신 주체의 변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물의 영웅담을 다룬 소설은 대부분 후자를 따른다.
- **주제**: 우리 이야기 문학 속에 등장하는 변신 모티프의 양상과 특징
- **구성**

1문단	환상적인 서사의 기반인 변신 모티프
2문단	고전 소설에 와서 인간이 변신의 주체로 등장함.
3문단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변신의 양상과 특징

나 작자 미상, 「김원전」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제작 연대와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소설로, 김원이라는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수박 형상을 하고 태어난 주인공이 10년 만에 탈을 벗고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고 온갖 시련을 거친 뒤 공주, 용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 신선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주제**: 지하국 아귀를 퇴치하고 공주를 구한 김원의 활약상
- **표현상의 특징**
  ① 적강 구조와 영웅 소설의 전형적 구성을 보임.
  ② 극적인 사건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인함.

• 구성

발단	원 모양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가 된 김원
전개	김원이 아귀를 처치하고 잡혀 간 공주를 구함.
위기	김원이 부하의 시기로 지하에 갇힘.
절정	용왕의 아들을 구한 김원은 용녀와 결혼한 뒤 인간 세상으로 나왔으나 피살됨.
결말	김원이 용왕에 의해 회생하고 천자의 부마가 됨.

1.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김원이 스스로를 불효자라고 한 것은 세속적 욕망에 물들어 있던 자신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보자기를 벗지 못하고 사느라 부모에게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① 선관이 들어와 '네 죄악이 다하였으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김원의 변신에 천상계가 정한 기한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옥황상제가 선관을 시켜 김원의 보자기를 벗기도록 한 것으로 보아 김원의 변신이 천상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가)를 참고할 때 천상계의 도움으로 보자기를 벗은 김원이 '만고의 영웅이요 일세의 기남자'로 장성하게 된 것은 변신으로 인해 김원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가)를 참고할 때 김원의 변신 전 모습은 천상계에서 지은 죄로 인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 작품의 내용 이해 |

'이제 황칙을 받자와 아귀를 죽이고 세 공주를 뫼시고 나가려 하여 내가 네 장수를 죽였거늘 너희만 한 것이야 초개와 다를소냐?'를 통해 볼 때, 김원은 자신이 아귀의 장수를 직접 죽였다는 사실을 밝혀 싸움의 기세를 올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김원의 부모는 궐에 들어가 잔치 중에 있었으므로, 김원은 자신의 변신 사실을 부모보다 노복을 먼저 불러 알게 하고자 했다.

③ 선관이 김원에게 하늘의 뜻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의 뜻을 누설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④ 선관은 승상 부부가 갑자기 보자기를 벗은 김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모를 것을 우려해 보자기를 두고 갈 테니 이 일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하였다. 승상 부부가 천상계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⑤ '승상이 처음에 걱정으로 지내던 일과 지금 영화를 생각하니 천만뜻밖이었다.'로 보아, 승상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 독자 반응의 적절성 평가 |

ㄴ의 '내외 상하며 이웃 사람과 친척 가운데 누가 아니 기뻐하리오.'는 작중 인물이 했던 말이 아니라, 작품에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편집자적 논평을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ㄴ의 독자는 주인공이 허물을 벗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오답 분석

① ㄱ은 오랫동안 허물을 쓰고 시련을 겪은 주인공에 대한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독자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ㄷ은 크고 강력한 적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둔 주인공의 모습을 강조하며 주인공의 비범함을 예찬하고 있다.

④ ㄹ은 김원이 보여 준 희생정신과 충성심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작품을 읽고 교훈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ㅁ은 전쟁에서 주인공이 크게 활약한 장면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장면에서 독자로서 느낀 심미적인 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4. | 소재의 기능 파악 |

'쌍봉 자금 투구'와 달리 '자금 용봉 투구'는 김원이 장착한 투구로 소아귀의 풍채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분석

① '붉은 도포'와 '옥으로 만든 채찍'은 선관의 신이한 능력과 연결되어 선관의 신비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② 허물을 벗은 것과 더불어 선관이 남기고 간 '천서 세 권'은 '김원'이 탁월한 재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김원이 '천서 세 권'을 끌러 본 것은 탁월한 재능을 갖는 계기가 된다.

③ 방 안에 놓여 있는 '허물'은 승상 부부가 김원이 허물을 벗고 변신했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⑤ 김원이 '으뜸 준마'를 타고 나는 듯이 대진하는 것으로 볼 때, '으뜸 준마'는 김원의 전투 역량을 높여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 한자 성어에의 적용 |

㉠은 아들이 흉물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사람으로 변신한 후의 기쁨을 표현한 말이므로, '힘든 일이 지나간 후에 좋은 일이 온다.'는 뜻의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오 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10 한중록

핵심 포인트 ❶ 사도 세자 ❷ 영조 ❸ 세손 ❹ 갈등

1. ② 2. ③ 3. ⑤ 4. ③ 5. ⑤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정조의 어머니이며 사도 세자의 빈(嬪)이었던 혜경궁 홍 씨가,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던 임오화변의 역사적 사실과 자신의 기박한 운명을 회상하여 자서전(自敍傳) 형식으로 기록한 궁정 수필로,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 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 **주제**: 사도 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한 파란만장한 인생 회고
- **표현상의 특징**
  ① 우아하고 품위 있는 궁중 용어를 사용함.
  ② 자전적 회고의 성격을 지님.
- **구성**

제1편	혜경궁 홍 씨의 어린 시절과 세자빈이 된 이후 50년간 궁궐에서 지낸 이야기
제2편	친정의 몰락에 대한 자탄(自嘆)과 억울함
제3편	사도 세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친정이 입었던 화(禍)는 모두 무고(誣告)에 의한 것임을 주장
제4편	사도 세자의 참변의 진상을 순조에게 알리고 친정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함.

1. | 글쓴이의 심리 및 태도 이해 |

이 글은 혜경궁 홍 씨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수필로, 자신이 겪은 비극적 사건을 회고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에서 글쓴이의 냉소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글쓴이는 관조적인 태도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기보다는 풍부한 감정 서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2. | 작품의 내용 이해 |

동궁은 대조의 부름에도 이상하게 '피하자'는 말도 '도망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조금도 화증이 나시는 기색 없이 용포를 달라 하'고 공손히 나가려 하였다.

오답 분석

① 동궁의 부름을 들은 '나'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하고 세손에게 가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당부하였다.
② '나'의 예상과는 달리, 동궁은 '그 장하신 기운도 없고 언짢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시는 양 벽에 기대어 앉'아 영조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④ 세손궁은 대조에게 나아가 '아비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빌었다.
⑤ '나'는 동궁의 폐위 소식을 알고 스스로 궁궐을 떠나 친정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3. | 창의적 상황에의 적용 |

〈보기〉를 참고할 때 「한중록」은 혜경궁 홍 씨가 사도 세자의 죽음을 회상하며 쓴 수필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쓰인 문학 작품이다. 따라서 서사 문학이 아니라 교술 문학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가의 상상력'보다는 작가의 경험을 기술한 글이다.

오답 분석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비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글을 소개하는 광고 문안으로 '역사적인 비화의 생생한 기록'은 적절하다.
②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은 궁중 여인이었던 혜경궁 홍 씨가 겪은 비극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 형식의 수필이다. 따라서 이 글을 소개하는 광고 문안으로 '궁중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담은 자서전'은 적절하다.
③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은 우아한 문장 표현과 절실하고 간곡한 상황 묘사로 궁정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글을 소개하는 광고 문안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문체로 그려 낸 궁중 문학의 정수'는 적절하다.
④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은 사도 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혜경궁 홍 씨의 회고록이다. 따라서 이 글을 소개하는 광고 문안으로 '사도 세자의 사연을 담은 혜경궁 홍 씨의 슬픈 비망록'은 적절하다.

4. | 소재의 의미 및 기능 이해 |

'무수한 까치떼가 경춘전을 에워싸고'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징조인지 괴이'했다고 서술한 것을 볼 때, ⓐ는 인물(혜경궁 홍 씨)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는 과거의 일을 떠오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 전후의 분위기가 모두 불길하고 긴장되는 분위기임을 고려할 때, ⓐ가 주변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 인물의 불길한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인물의 심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되지는 않는다.
⑤ ⓐ는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5. | 구절의 의미 파악 |

'나'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동궁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세손의 휘항이 동궁에게는 작을 것을 고려해 본인의 휘항을 쓸 것을 권유한 것이다.
② ㉠에서 '나'는 동궁에게 세손의 휘항이 작을 것을 고려하여 한 말이지만, 동궁은 이러한 '나'의 의도를 오해하여 ㉡과 같은 발화를 한 것이다.
③ '내가 오늘 가서 죽겠기로'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인물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④ '나'는 ㉡을 듣고 자신의 뜻을 몰라 준 동궁에게 서러운 마음을 담아 세손의 휘항을 갖다 준 것이다.

104~107쪽

11 춘향가

핵심 포인트 ❶ 봉건 ❷ 월매 ❸ 암행어사 ❹ 어사또

1. ⑤ 2. ② 3. ② 4. ③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현전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주인공인 춘향의 사랑과 시련을 그린 판소리 사설이다.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춘향과 그러한 춘향을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변 사또의 갈등을 통해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과 신분 차별이 존재했던 조선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여성의 굳은 정절
- **표현상의 특징**
  ① '행복 – 불행 – 행복'의 순환 구조를 갖춤.
  ② 다양한 근원 설화의 요소를 수용함.
- **구성**

발단	이몽룡이 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반하여 춘향을 찾아가 백년가약을 맺음.
전개	몽룡의 부친이 서울로 떠나면서 몽룡과 춘향은 이별을 하게 됨.
위기	남원 부사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 들기를 강요하고, 춘향은 이를 거절하다가 옥에 갇힘.
절정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옴.
결말	이몽룡은 변학도의 잔칫날에 어사 출도를 통해 변학도와 각읍 수령을 처벌하고 춘향을 구해 내어 행복하게 삶.

1. | 비교 분석의 적절성 평가 |

[A]는 [중모리]의 장단으로 부르는 창 부분으로 운문적 표현에 가깝고, [B]는 [아니리] 부분으로 산문의 형식에 더 가깝다.

오답 분석

① [A]에서 춘향은 내일 본관 사또의 '생신잔치' 끝에 사또가 자신을 죽일 것임을 예측하여 말하고 있다.
② [B]에는 어사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서 심중에 있는 말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대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③ [A]는 죽음을 앞둔 춘향이가 죽어서 바라는 바를 어사또에게 전달하는 장면으로, 춘향이의 부탁하는 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④ [B]는 '서울서 어어 얻어먹고 왔단 말이다.' 등과 같은 춘향 모의 발화를 통해 상황을 희극적으로 연출하여 골계미를 드러내고 있다.

2. | 구절의 기능 및 의미 파악 |

'높은 벼슬도 내사 싫고, 많은 재산도 내 다 싫소.'는 춘향의 진심이 담긴 표현으로,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분석

① '서방'의 '방'을 반복하는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서울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비렁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이부(李夫)를 이부(二夫)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통해 순간적으로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진국명산 높은 봉우리'와 '층암절벽 위의 돌'에 자신을 빗대며 자신의 견고한 정절을 부각하고 있다.
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을 통해 사또에 이어 또다시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 소재의 기능 파악 |

'옥지환'은 춘향이 끼고 있다가 어사또와 이별할 때 어사또에게 주었던 반지로, 어사또의 정체를 모르고 있던 춘향에게 어사또가 자신의 정체를 알려 주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옥지환'이 춘향의 과거 기억을 환기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③ '옥지환'을 통해 오히려 춘향의 감정은 더욱 고조된다.
④ '옥지환'이 춘향에 대한 어사또의 고마움을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옥지환'이 춘향의 고통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독자들에게는 어사또의 정체를 미리 밝혀 주었기 때문에 어사또가 일부러 꾸며 하는 말에 대해 독자들의 긴장감은 고조되지 않게 된다.

오답 분석

① 춘향 모가 어사또의 정체를 모르고 '비렁거지'라고 한 것은, 정체 속이기가 춘향뿐 아니라 춘향 모 등 광범위한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독자들에게는 미리 어사또의 정체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오늘 밤이 새고 보면 상여를 탈는지 가마를 탈는지, 그 속이야 누가 알겠느냐?'라는 어사또의 말을 어사또가 춘향을 구해 가마를 태워 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④ 춘향이가 '어서 급히 죽여 주오.'라고 발화한 이후에 어사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은 서사 전개상 사건의 긴장감이 절정에 이른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춘향이가 어사또의 정체를 확인한 후 '말 못하고 기절'한 장면은, 정체를 드러낸 어사또에 놀란 춘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 분석

고전 소설에서 보이는 '정체 속이기'의 기능

〈보기〉는 고전 소설에서 보이는 서사 수법 중 하나인 '정체 속이기'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글이다. 고전 소설에서는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 정체 속이기라는 수법을 활용하는데, 「춘향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Ⅲ 갈래 복합

110~112쪽

01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 고공가 / 산민

핵심 포인트 ❶ 한자어 ❷ 허세 ❸ 주인 ❹ 머슴(신하) ❺ 산골 ❻ 탐관오리

1. ② **2.** ② **3.** ④ **4.** ④

가 작자 미상,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상인이 물건을 팔며 외치는 말과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사설시조이다. 상인이 동난지이를 사라고 외치자, 어떤 사람이 동난지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상인이 게의 모습과 게장의 맛을 어려운 한자어를 동원해 가며 장황하게 묘사하자, 그 사람은 게젓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리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느냐고 핀잔을 준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상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현학적 허세를 지녔던 당대 지배층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주제**: 현학적인 허세에 대한 비판
- **표현상의 특징**
  ① 풍자적인 어조와 해학적인 태도로 비판적 주제를 드러냄.
  ② 대화 형식과 의성어 사용으로 생동감을 유발함.
- **구성**

초장	상인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자세한 뜻을 물음.
중장	상인이 게와 게장의 맛에 대해 장황하게 묘사함.
종장	상인의 현학적인 허세를 비판함.

나 허전, 「고공가」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나라의 상황을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빗대면서, 정사에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집안의 게으르고 어리석은 머슴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구들에게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권 다툼에만 열중하는 신하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머슴에 비유하여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 **주제**: 게으르고 이기적인 머슴(신하)들에 대한 비판
- **표현상의 특징**
  ① 비유 구조를 통해 비판적 주제를 형상화함.
  ② 4음보 율격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구성**

1~3행	고공에게 들려주는 우리 집 기별
4~10행	한어버이 때의 풍족했던 살림과 근검했던 고공들
11~15행	다툼과 시기만 일삼는 요사이 고공들
16~19행	가산을 탕진하게 된 요사이 집안의 형편
20~21행	고공들이 새 마음을 먹어 줄 것에 대한 당부

다 김창협, 「산민」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한시이다. 시적 대상이 이웃도 없이 외진 산골의 인가에서 외로움과 가난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수탈을 일삼는 무서운 고을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관리들의 횡포를 고발함과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 숙종 때의 문신이었던 작가는 양반이면서도 백성의 현실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던 양반 시가의 한계를 벗어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횡포 비판
- **표현상의 특징**
  ① 견문과 대화를 통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②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뒷받침함.
- **구성**

1~4행	산골 부인의 인정 있는 태도
5~8행	산골에서의 고달픈 삶의 모습
9~12행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
13~16행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대한 비판

1. | 작품 간 비교 감상 |

(가)는 게젓 장사와 손님 간의 대화를, (다)는 화자와 '부인' 간의 대화를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나)의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여 일으키려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와 (다)에는 구체적인 실제 지명이 언급되지 않았다.
④ 세 작품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의 '우스슥'과 (나)의 '흘깃흘깃'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2. |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B]가 짝을 이루는 시구, 즉 대구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대상의 헌신적 태도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B]는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갖는 관리들의 모습을 빗댄 것으로,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오답 분석

① (가)의 중장에 해당하는 [A]는 게의 외양과 특성을 어려운 한자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③ [C]의 '~ 일으키려는가'에서는 의문, '~ 먹으려무나'에서는 명령 형식을 통해 대상인 고공들에게 화자가 요청하는 바, 즉 새 마음을 먹고 집안 살림살이를 일으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D]는 말에서 내려 사람을 부르고 집에 들어가 부인이 내온 밥상을 받는 것까지의 시적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며,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밥상을 차려 내오는 부인의 모습에서 화자에 대한 정성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⑤ [E]에는 대비되는 두 공간, 즉 척박한 두메산골과 편안한 평지를 언급하면서 대상인 산민에 대해 화자가 가련하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 소재의 기능 파악 |

ⓐ는 왜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얼마 전에 침략하여 전란을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끼쳐 나라의 재산을 모두 잃게 만든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마음 놓고 콩잎을 뜯지도 못하게 만들 만큼 산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이다. 따라서 ⓐ와 ⓑ는 모두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나)에서 과거의 고공들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가 과거 회상의 매개가 되는 건 아니다. 또 (다)는 과거 회상과 무관하다.

② (나)와 (다)의 화자 모두 자아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③ ⓐ와 ⓑ 모두 타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는 자연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완전히 무관하다.

⑤ (나)와 (다)의 화자 모두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다)는 탐관오리의 학정에 대한 직설적 비판을 담은 작품이다. ㉣은 밥상을 내온 아낙네에게 그 남편은 어디에 갔는지 물은 것이고, 그 물음에 대해 아낙네는 남편이 아침에 쟁기를 들고 산에 가서 거친 땅을 일구느라 해가 저물 때까지 못 온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이 가정 내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남성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가)를 우의적 비판이 담긴 작품으로 본다면 게젓 장수는 실제 게젓 장수가 아니라 부정적인 면모를 갖춘 어떤 인물이나 계층을 빗댄 것이 된다. (가)에서 게젓 장수는 쉽게 '게젓'이라고 하면 될 것을 어렵고 복잡한 말로 설명하고 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은 자기가 배운 것이 많다고 어려운 말을 써 가면서 뽐내는 지식인 계층에 대한 우의적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③ (나)는 나라의 운영을 한 집안의 살림살이에 빗대는 방식으로 나태하고 무책임한 벼슬아치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작품이다. 따라서 ㉡은 '우리 집 기별'에 해당하는 나라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심되는 관리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또 ㉢은 처음에 조부모께서 큰 집을 짓고 살림을 시작할 때 고공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검하여 부유하게 살던 것과 달리 요즘 고공들은 생각 없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내용이므로, 현재 관리들에 대한 비판을 개국 초기 관리들과의 대비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⑤ 평지의 생활이 편한 것을 알면서도 산민들은 고을 관리가 펴는 학정이 너무 무서워서 평지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직설적 비판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13~116쪽

02 한거십팔곡 / 포화옥기

핵심 포인트 ❶ 벼슬 ❷ 은거 ❸ 집 ❹ 여관집 노비

1. ④ **2.** ③ **3.** ② **4.** ③ **5.** ⑤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벼슬길에 나가 임금을 섬기는 삶과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는 삶 사이의 고민을 드러낸 뒤, 강호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대부의 심회를 술회하는 총 19수의 연시조 작품이다. 특히 작품의 전반부(제1수~제8수)에는 사대부로서의 고민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치군택민)과 '강호한정'을 추구하는 삶(조월경운)을 교차적으로 드러내면서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한가한 삶의 수용
- **표현상의 특징**
  ①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면을 표출함.
  ② 대비를 통해 심리적 갈등의 내용을 드러냄.
  ③ 설의법, 대구법으로 화자의 의도를 부각함.
- **구성**

제1수	평생토록 충효를 추구하는 마음
제2수	계교로 인해 입신이 늦어진 안타까움
제3수	세사를 잊고 자연 속의 삶을 즐기려는 마음
제4수	자연을 즐기는 일과 벼슬에 오르는 일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
제8수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에서 빈천거를 택하기로 하는 결정
제17수	은거하면서도 성현의 가르침인 도를 추구하겠다는 의지

나 이학규, 「포화옥기」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이학규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경상도 김해로 유배를 갔을 때 쓴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힘들어하며 이런 사정을 서울에서 온 나그네에게 토로하는데, 나그네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여관집에서 본 노비의 삶의 태도에 대해 글쓴이에게 이야기한다. 나그네는 여관집 노비가

비록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글쓴이도 안분지족의 태도를 지니라는 조언을 한다.

- **주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태도
- **표현상의 특징**
  ①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전달함.
  ② 대조의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함.
- **구성**

처음	'나'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로 인한 근심
중간	나그네와의 대화를 통해 듣게 된 여관집 노비 이야기에서 얻은 깨달음
끝	깨달음을 새기고자 집필하게 된 내력

1. **|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가)는 강호에서 소락을 추구하는 조월경운의 삶과, 성주를 섬기는 치군택민의 삶을 대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과 '여관집 노비'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대조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대조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제1수〉의 중장, 〈제17수〉의 중장과 종장 등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가)에서 '무심 어조'를 향해 '너를 조ᄎᆞ려 ᄒᆞ노라'라고 한 것은 의인화를 통해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의인화로 친근감을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감탄사를 통해 예찬의 태도를 강화한 부분은 없다.
⑤ (나)는 나그네가 건넨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가)는 대화의 직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2. **|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갈 데 몰라 ᄒᆞ노라'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강호'와 '소락'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강호'와 '성주' 사이에서의 갈등, 즉 '조월경운'과 '치군택민'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오답 분석

① '십재황황'은 '충효'를 실천하고 '공명'을 이루기 위해 십 년을 허둥지둥 보냈다는 것이므로 '치군택민'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부귀 위기'라서 '빈천거'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부귀 위기'는 '무심 어조'를 따르는 은거의 삶을 선택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는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세상이 의롭지 못할 때 '출'이 아니라 '처'를 택하는 것도 도를 추구하는 선비의 본분이라고 보았고, 권호문도 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있으므로, 당파 싸움이 극심했던 당대의 현실이 의롭지 못한 것이 권호문의 '빈천거' 선택, 즉 '처'를 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⑤ 〈제17수〉에는 은거의 삶이든 세상에 나아가는 삶이든 도를 추구하는 데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는 선비의 본분 실천을 하는 것이 은거 중에도 가능함을 '아무 덴들 어떠리'에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3. **|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

B에는 나그네가 추구하는 조화로운 공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신분의 서열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여름철 여관에서 시원한 곳을 차지하는 순서가 신분에 따라 정해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분석

① A에는 글쓴이가 사는 집에 들끓는 모기와 파리 떼, 뱀 등으로 인해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이런저런 병이 걸린 글쓴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③ C는 나그네가 여러 곳을 다니며 장사를 하면서 여관에 머물던 경험인 B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관집 노비의 모습을 보고 느낀 바를 전달한 것이다.
④ 나그네는 C를 통해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글쓴이에게 일러 주려 하였다.
⑤ 글쓴이는 나그네가 B와 C를 통해 들려준 이야기에 공감하며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화옥기」라 하였다.'라고 했을 것이다.

4. **| 구절의 의미 이해 |**

㉣은 벌레나 뱀 때문에 지치고 두려워하는 고통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제시한 것일 뿐 위정자들의 수탈로 시련을 겪는 피지배층의 일상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충'과 '효'가 평생 원하는 바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날짐승이나 길짐승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기초적 도덕 규범에 대한 인식이 담긴 것이다.
② 은거의 삶이나 벼슬에 오르는 삶이나 추구해야 할 도가 어찌 다르겠느냐는 진술이다. 따라서 ㉡은 올바른 삶을 위해 탐구할 궁극적 진리, 즉 도(道)는 하나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④ 여관집 노비는 다 해진 옷을 입고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지만 재앙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린다. 따라서 ㉢은 가혹한 삶의 조건과 달리 평온하고 행복한 여관 노비의 모습이 언급된 것이다.

⑤ ㉤은 나그네가 청자인 '나'에게 한 말로, 옛 성현의 삶을 지향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 바라면서도 여관집 노비만큼의 성숙한 태도도 보여 주지 못하는 글쓴이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이다.

5. **|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 |**

ⓐ는 강호에 은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 성주를 보필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의 갈림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방향과 관련된 분기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 ⓑ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속세와 먼 곳에 머무는 처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나그네는 이 세상이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여관 같은 곳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또 속세와 멀리 떨어져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는 글쓴이는 '여관 중의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117~120쪽

03 '밤'과 '꿈'을 소재로 활용한 상사의 노래

핵심 포인트 ❶ 독수공방 ❷ 전전반측 ❸ 사랑 ❹ 그리움

1. ③ **2.** ② **3.** ① **4.** ④ **5.** ②

가 작자 미상, 「상사별곡」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고 독수공방하는 화자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조선 시대 12가사 중 하나이다.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절절한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생생하게 서술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① 기원의 대상을 설정하여 소망하는 바를 표출함.
  ② 대구와 반복의 방법으로 리듬감을 높임.
  ③ 설의와 대구를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 **구성**

1~4행	생생하게 떠오르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5~10행	밤이 되어 더욱 깊어지는 그리움
11~18행	예상치 못했던 이별과 그 이후의 외로운 신세

나 김상용, 「사랑이 거짓말이 ~」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임 생각에 잠 못 이루는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떠난 임이 나에게 남겼던 사랑의 언약이 거짓이리라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듯한 말투를 통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임은 화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꿈에 만나러 오겠다고 했지만, 만일 자신처럼 임도 그리움에 잠이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묻고 있다. 이 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연군 시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① 점층, 반복,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함.
  ② 투정하는 어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함.
- **구성**

초장	사랑한다는 임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추측
중장	꿈에 와서 보겠다는 임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추측
종장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이 들지 못하는 마음

다 이옥봉, 「몽혼」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여류 시인 이옥봉이 지은 칠언절구 한시로, 「자술(自述)」이라는 또 다른 제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여인의 목소리로 담아낸 작품으로, 꿈속에서 임과 만나는 것을 가정하여 자신의 정서를 독창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임.
  ② 과장법을 통해 소망의 절실함을 드러냄.
  ③ 임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
- **구성**

기(제1구)	임의 안부를 물음.
승(제2구)	자신은 한이 많다고 말함.
전(제3구)	꿈속의 넋이 자취를 남기는 상황을 가정함.
결(제4구)	문 앞의 돌길이 닳아서 모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라 이명한, 「꿈에 단니는 길히 ~」

-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꿈을 소재로 하여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서를 표출한 시조이다. 꿈에 다니는 길에도 자취가 남는 것이라면 임의 집 앞의 돌길은 임을 수시로 생각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다 닳아버렸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했다. 또 그 꿈길이 자취가 남지 않기에 자기 사랑을 임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정서를 표출함.
  ②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출함.
- **구성**

초장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는 가정
중장	임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으로 돌길이 닳았으리라는 짐작
종장	꿈길에 자취가 남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1. **| 작품의 내용 파악 |**

(가)에 대한 설명에서 이 노래에 담긴 그리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특히 기방에서 (가)가 애창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전 시가에 담긴 이별의 정한이 주관적 정서이기에 대중적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사랑과 이별로 인한 애상적 정서의 표출은 특정한 시대 · 갈래 · 향유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시에 등장했다고 하였다.

② 글의 맨 처음 부분에 따르면, 사랑을 노래한 고전 시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상사의 노래라고 하였다.

④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부분에 따르면, 밤은 잠 못 들고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의 시간이다.

⑤ 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수많은 상사의 노래가 '밤'과 '꿈'을 소재로 한 것은 임 가까이에 갈 수 없는 현실의 처지와 달리 꿈속에서는 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2. |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

(나)의 화자는 임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며 밤을 지새고 있다. 그러면서 임도 이렇게 자신처럼 그리움 때문에 잠이 못 든다면 꿈을 못 꿀 텐데, 그렇다면 꿈에 보러 온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이 꿈에 와서 본다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화자가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꿈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오동추야', 즉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에 임 생각이 난다고 한 것은 지문에서 언급한 대로 상사의 시간이 불면의 밤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달빛 드는 사창'은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점을 알게 해 주고, 임을 떠올리며 '한이 깊어' 간다고 말하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리운 임이 연락조차 없는 것으로 인한 원망의 감정이 투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꿈속의 넋'한테 '자취를 남기게' 한다는 가정을 한 것은 자신이 꿈속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 임이 사는 곳까지 수도 없이 오갔음을, 즉 임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크고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지났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적 발상이다.

⑤ (라)에서 '**쑴**길이 자최'가 없는 것으로 인해 화자가 슬퍼하는 것은 '석로'라도 닳게 만들었을 만큼 부단히 임에게로 오갔던 화자의 꿈길이 자취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 표현상 특징 파악 |

(가)에서는 '~ 어느 우리 낭군이 날 찾으리', '~ 세사 일분 관계하랴', '~ 끊어질 줄 어이 알리'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에서는 '~ 어늬 **쑴**에 뵈오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였다.

오답 분석

② 감각의 전이는 (가)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의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 사랑 맺어 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아'는 화자와 임 사이의 사랑을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나)에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없다.

④ (가)에서는 '암암', '쟁쟁'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임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리움에 젖어 있는 화자의 심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반복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반복을 통해 화자가 대상에게 지닌 비판적인 태도를 부각한 것은 (나)뿐이다. (나)는 '거짓말이'를 반복하여 임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 |

ⓐ는 '임 생기라 하고' 비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간절한 기원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는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떠올리는 대상이다. 화자는 자신과 임의 이별 원인이 조물주의 시샘 때문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겪은 이별이 운명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인식,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다는 인식, 이별의 원인을 외부로 돌려 보려는 태도 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답 분석

① ⓐ와 ⓑ는 모두 예찬의 대상으로서의 임이 아니다.

② ⓐ가 임과 화자의 관계를 결정해 준 전능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는 임이 사랑하게 된 새로운 대상이 아니라 화자와 임 사이를 질투했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③ ⓐ는 화자에게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화자의 소원을 들어 줄 초월적 존재이고, ⓑ는 화자가 질투의 대상으로 삼게 된 존재가 아니다. 화자는 오히려 ⓑ가 화자와 임 사이를 질투한 존재일 수 있다고 본다.

⑤ ⓐ가 인간적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도 공적인 관계만 중시한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 작품 간 비교 감상 |

ㄱ. 이 글의 설명에 따르면 (다)는 한시 중 칠언 절구이고, (라)는 시조이지만 칠언 절구의 한시로 번역되어 『해동소악부』에 실리기도 했다. 따라서 ㄱ은 적절하다.

ㄷ. (다)를 지은 이옥봉보다 (라)를 지은 이명한이 후대의 문인이라고 하였으므로, 동일 모티프와 표현을 담고 있는 (다)와 (라)의 관계에서 (다)가 (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다.

오답 분석

ㄴ. (다)는 청자인 임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고, (라)는 화자의 독백 형식이다. 따라서 ㄴ은 적절하지 않다.

ㄹ. (라)의 초, 중장과 내용상 유사성을 보이는, 과장법을 사용한 부분을 (다)에서 찾으면 1, 2구가 아니라 3, 4구이다. 따라서 ㄹ은 적절하지 않다.